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9 vol.326

02

유럽 박물관 기행

모든 것이 있는 그곳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피렌체, 단테 그리고 단막극의 전형을
보여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커버스토리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KNN과  강림문화재단 이 함께하는


제6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2019. 2. 21.(목)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강림문화재단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 특 별 후 원 |  (주)강림CSP  (주)임수복장학재단  (주)강림오가너  바이오름  (주)삼비
| 문 의 | KNN 051-850-9568 www.knn.co.kr
| 입 장 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 신청 |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지휘 **금난새**
연주  방송교향악단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피아노 **박세준**
색소폰 **황동연**

KNN PHILHARMONIC ORCHESTRA

Romantic Praha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프라하



Violin - 이성주



Violin - Laurent Korcia



Piano - 변애영



Cello - Arto Noras

부산공연

2019년 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Flute - Davide Ferrisano



Viola - 임광용

서울공연

2019년 2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일신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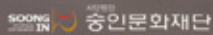


Piano - 김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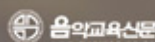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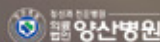


Violin - 김성준

주최 주관



후원



티켓 및 예매

부산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서울 전석 5만원

예매 :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문의 : contact.soongin@gmail.com 010 7482 8228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OUNG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제548회 정기연주회

Bruckner's
7th Symphony

2019. **2.15**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브루크너 · 교향곡 제7번

Bruckner · Symphony No.7 in E major, WAB107

Allegro moderato

Adagio. Sehr feierlich und sehr langsam

Scherzo. Nicht schnell - Trio. Etwas langsamer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정치용 Chi-Yong Chung, Conducto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신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 (2회 운행)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제27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쿨

THE 27th GloVil National Music Competition

대한민국 음악인재의 등용문

2019. 3. 23 / 3. 30 / 4. 6

대회일 2019. 3. 23. (토) 피아노 접수마감 : 3. 20.(수)
2019. 3. 30. (토) 관현악/실내악/성악/중창 3. 27.(수)
2019. 4. 6. (토) 작곡/국악 4. 3.(수)

장소 글로벌아트홀

부문 피아노 / 관현악 / 실내악 / 성악 / 중창 / 작곡 / 국악

대상 유 / 초 / 중 / 고 / 대 / 일반전공 / 일반비전공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 또는
콘테스트(www.contest.co.kr)

일정표 대회 상세일정표는 각 부문 접수마감 후
목요일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에 공지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작곡 과제곡
중등부 : 주어진 동기에 두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고등부 : 주어진 동기에 세도막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대학일반부 : 실내악작품 5부 제출(음원 및 악보 제출, 해설첨부, 기법과 형식은 자유)

참가비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개인 10만원(유초등부 8만원) / 중창팀 및 실내악팀 1인당 5만원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상 전체대상(부산광역시장상), 특별상(동래구청장상)
부문별 최우수상(글로벌예술원장상)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글로벌콘서타토리학장상)

심사기준 각 부문별 및 각 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

수상자 특전 및 지도자 특혜(홈페이지 또는 전단 이면지 참조)
시상식 및 수상자축하음악회 2019년 4월 27일(토) 17시
(녹음 : 13시, 녹화 : 17시)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제54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한, 봄맞이

CLASSICAL GREETING
FOR SPRING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9. **3.7** THU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봄의 소리」 왈츠
J. Strauss II · "Frühlingsstimmen", Waltz, Op.410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Op.37
Allegro, Largo, Rondo, Allegro

라벨 · 라 발스
Ravel · La Valse

모차르트 · 교향곡 제31번 「파리」
Mozart · Symphony No.31 "Paris", K.297
Allegro assai, Andante, Allegro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074-5(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비스 운영(무료) 출발지: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영)

Contents

08



18



2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9년 2월호 통권 326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주간 이승훈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9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디자인글꼴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 Timeless Style
'노만 파킨슨'展

12 SCHEDULE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2월 공연캘린더

16 BACKSTAGE OPERA

피렌체, 단테 그리고 단막극의 전형을 보여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18 MUSEUM OF EUROPE

모든 것이 있는 그곳
파리(Paris), 루브르 박물관(Le musée du Louvre)

22 TRAVEL WITH YOU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난 겨울 여행

27 PREVIEW

36 REVIEW

38 PROGRAM GUIDE

프로그램 가이드

47 NEW BOOK

새로 나온 책

48 BSCC NEWS

(재)부산문화회관 소식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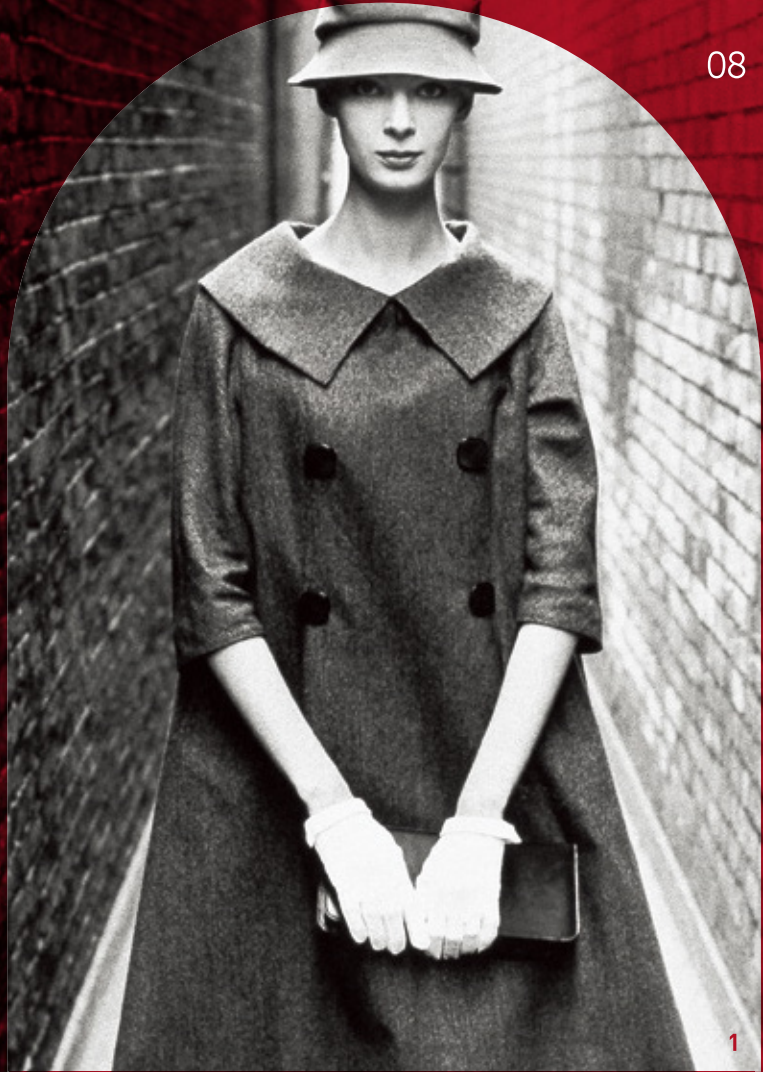
커버스토리

08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 Timeless Style 노만 파킨슨展

영국의 혁명적인 패션 사진가
‘노만 파킨슨’展이 2월 15일(금)부터
4월 30일(화)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와 KT&G 상상마당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노만 파킨슨의 국내 첫 전시회로, 부산전시에 앞서 지난해 2월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바 있다. 패션 사진작가인 노만 파킨슨은 당시 전형적이었던 실내 스튜디오 촬영 형식을 깨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야외 배경의 패션 사진을 만들어 낸 선구자로, 미국판 패션지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1960년대 영국판 패션지가 고유의 스타일로 부상하는데 일조한 독창적인 사진작가였다. 영국의 전설적인 음악그룹 비틀즈의 음악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아오듯이, 노만 파킨슨의 상상력 넘치고 독창적인 사진들 역시 모

든 것을 뛰어 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스타일은 영원하다’란 타이틀도 공감각적인 보편성이란 차원에서 같은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KT&G상상마당과 함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인 퀸틴 블레이크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유료관객 1만 1천명을 돌파했던 부산시민회관은 올해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공연장과 전시실을 분리하지 않는 독특한 컨셉으로 전시회를 꾸민다. 전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월 15일(금)-4월 30일(화)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일반 8천원, 패션전공 대학생 4천원,
초중고·경로우대 3천원, 미취학 아동 2천원

※ 관람시간/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7:00 입장마감)

※ 도슨트 운영/월-목요일 오전 10:00,
오후 3:00(15인 이상 단체 예약)
금-일요일 오후 1:00, 3:00(일반)

노만 파킨슨 스타일은 영원하다 Timeless Style

상상마당 수석 큐레이터 김혜영

1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첫 크리스티앙 디오르 컬렉션의상을 선보이는 모델 네나폰 솔레브루그 (배우 우마서먼의 어머니) I, <보그>, 1958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2 뉴욕 렉싱턴 애비뉴의 쿤데나스트 건물 옥상에서 벨벳 모자를 쓴 여자들, <보그>, 1949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의 쾌속정 위에서 바닷 바람을 만끽하는 여자들, 프랑스 르 투케의 무게 구름 아래에서 힘차게 스윙하는 골퍼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셔터를 누르는, 실크 블라우스 차림의 한 남자.

실내 스튜디오에서 다소곳하게 앉아, 마치 초상화처럼 카메라를 향해 우아한 미소를 고수하던 1930년대 후반의 패션 사진 스타일의 틀을 깨고 모델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온 이 사진작가는 바로 노만 파킨슨(Norman Parkinson, 1913-1990)이다. 노만 파킨슨은 1931년,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 '스페이트 앤드 선(Speaight and Sons Ltd)' 회사에서 수습 사진사로 사진계에 입문했다. 그곳에서 노만 키블 화이트(Norman Kibblewhite)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1934년 둘의 이름을 합쳐 런던 피카딜리에 '노만 파킨슨 스튜디오(Norman Parkinson Studio)'를 연다.

그의 본명은 로날드 윌리엄 파킨슨 스미스(Ronald William Parkinson Smith)이지만, 이 때 탄생한 '노만 파킨슨'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개인전을 열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패션지인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의뢰를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지닌 그는 패션계에 입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역동적이고, 혁명적이기까지 한 독창적인 패션 사진가로 인정받는다. 미국판 패션지가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1960년대에 영국판 패션지가 고유의 스타일로 부상하는데 일조한 선구자였다.

노만 파킨슨의 국내 최초 회고전에서는 영국의 낭만적인 전원 풍경과 활기찬 도시, 음산한 런던의 뒷골목부터 왕실 가족이 머무는 화려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의 작업을 총망라했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야외 배경 작품들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포토의 매력(Street Photography)' 섹션이 시작된다. 더블린의 다세대 주택가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블랙풀의 연금수령자들은 흑백 사진 속에서도 생동감을 잃지 않으면서, 노만 파킨슨의 따뜻한 시선 속에 머무른다. 이어서 <하퍼스 바자>를 비롯해 <보그(Vogue)>, <퀸(Queen)> 등 에디터, 디자이너, 사진가 모두에게 최고의 포트폴리오로 일컬어지는 유수의 패션매거진 커버와 화보 섹션이 펼쳐진다. 세실 비튼(Cecil Beaton)과 같은 패션사진계의 주요 라이벌들은 그를 일컬어 '좀 튀죠(a bit flash)'라고 했는데, 평범함을 벗어난 새로운 그의 방식을 이 섹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항공여행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에 이와 같은 흐름을 놓치지

COVER STORY

커버스토리

않고 잘 활용한 노만 파킨슨은 해외 현지 촬영을 시도한 최초의 사진작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세계를 오가며 그 나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규범에서 벗어난 독창적 창조물들을 만들어냈다. 이는 정체된 영국 사진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사진가들로 하여금 이국의 사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거나 모방하게 만드는 자극이 되기도 했다. 1세대 패션모델로 알려진 카르멘 델로피체(Carmen DellOrefice, 1931-)부터 노만 파킨슨에 의해 <보그>의 표지 모델이 된 후 유명해진 제리 홀(Jerry Hall, 1956-), 그의 부인이자 모델인 웬다 로저슨(Wenda Rogerson, 1923-1987)까지 세계 최고의 모델과 뮤즈들의 사진도 전시된다. 노만 파킨슨은 카메라 앞에 선 모델들이 여자로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아닌,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기를 원했으며 모델들은 그의 진실된 열정과 순발력에 모두 감화되었다.

1973년 앤 공주(Princess Anne) 결혼식의 공식 사진사직을 수락한 이래로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된 노만 파킨슨은 패

션화보처럼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왕실 사진들을 완성한다. '영광스러운 순간들' 섹션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모후(Queen Mother Elizabeth), 찰스 왕세자(The Prince Charles), 마거릿 공주(The Princess Margaret Rose)를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마지막 섹션에서는 한국 관객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비틀즈(The Beatles), 데이빗 보위(David Bowie), 엘튼 존(Elton John), 비비안 리(Vivien Leigh), 칼빈 클라인(Calvin Klein) 등 스타급 뮤지션과 예술가, 디자이너들의 초상 사진을 통해 화려한 경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고의 스타들은 그의 카메라 앞에서 마치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는 듯, 편안하게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전시 제목인 '스타일은 영원하다(Timeless Style)'는 그의 작품이 50~60여 년 전의 패션 양식이나 인기 모델, 연예인, 왕실의 주요 행사를 소재로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전시 공간은 1990년 싱가포르 정글의 촬영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카메라를 놓



3-6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전시 모습

4 영국판 <보그>의 사진 에디터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작가인 로빈 뮤어가 찍은 노만파킨슨(왼쪽)과 모델 프랭키, 1983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5 겨울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인 노만 파킨슨(오른쪽)과 피에르 발망의 트위드 정장을 입은 모델 릴리 티자니, <퀸>, 1962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7 러시아에서 모델 제리 홀, <보그>, 1975

© Iconic Images / The Norman Parkinson Archive 2018



5

6



지 않았던 노만 파킨슨의 '미(美)'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담은 버건디 컬러로 채워졌
 다. 그가 즐겨 입던 실크 블라우스에서 모
 티브를 얻은 하얀 색 커튼도 관람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심한 장치이다. 큐레이
 터와 함께 오랜 시간 노만 파킨슨의 작품
 을 연구한 공간 디자이너들은 관객들이
 다음 작품을 기대하며 커튼을 젖히는 동
 안, 마치 영국의 패션 쇼 무대 뒤를 탐색하

는 듯한 설레임과 감동을 경험하기 원했다.
 이번 전시는 올해 2월 KT&G 상상마당 홍
 대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이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와
 KT&G 상상마당 주최, 주관으로 부산 시
 민들을 찾아간다. 2019년 2월 15일부터 4
 월 30일까지 75일간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에서 만나볼 수 있다.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시리즈

KT&G 상상마당은 2014년 첫 번째 해외작가 기획전 로베르 두아노 '그가 사랑한 순간들'전을 시작으로, 2015
 년 레이먼 사비나 '캔버스 위에 찰리 채플린'전, 2016년 장자크 상삐 '파리에서 뉴욕까지'전, 2017년 상반기 자
 끄 앙리 라띠끄 '라 벨 프랑스(La Belle France)'전, 2017년 퀸틴 블레이크 '스위트 팩토리(Sweet Factory)'전
 을 진행한 바 있다. 2016년부터는 KT&G 상상마당 홍대, 춘천 갤러리 뿐 아니라 부산의 신세계갤러리 센텀시
 티점, 부산시민회관 등에서 순회전 형태로 전시를 이어가며 관객층 층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 가치가 잘 알
 려지지 않은 해외 작가를 대중 관람객에게 소개함으로써,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
 며, '일상의 활력이 되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예술의 본질을 설득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2

2019 FEBRUARY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첼** 챔버홀
아 야외광장 **사** 사랑채극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 SUN | MON | TUE |
|---|-----------|---|
| <p>전시실</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18년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p> <p>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주)PMC네트웍스 1599-7372</p> <p>◆ 관람시간 평일(화~금요일) 오후 1:20, 2:00, 2:40, 3:20(*평일 오전은 단체관람으로, 일정에 따라 개인 관람 가능) 주말·공휴일 오전 10:20, 10:50, 11:20, 11:50, 오후 1:20, 1:55, 2:30, 3:05, 3:45, 4:20</p> <p>※ 체험시간 1시간 40분 ※ 매주 월요일 휴관</p> | | |
| 3 | 4 | 5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10 | 11 | 12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17 | 18 | 19 |
| <p>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1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 19:00 대 전석 3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860)</p>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24 | 25 | 26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p>제 13회 부산진구립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중 무료 부산진구립 라온소년소녀합창단(010-2646-6289)</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WED | THU | FRI | SAT |
|--|---|--|--|
| | | <u>1</u> | <u>2</u> |
|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u>6</u> | <u>7</u> | <u>8</u> | <u>9</u>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u>13</u> | <u>14</u> | <u>15</u> | <u>16</u>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주제로 노래하는 브런치 콘서트' 11:00 대 [로비] 전석 1만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1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9:30 중 신재한(010-7586-5408) 맹재빈 색소폰 귀국독주회 19:00 첼 1만원·5천원/맹재빈(010-5575-3704)</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u>20</u> | <u>21</u> | <u>22</u> | <u>23</u> |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6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19:30 대 초대(KNN 홈페이지에서 초대권 신청) KNN(850-9568)</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프라하 19:30 대 6만원·4만원·2만원 (사)송인문화재단(010-7482-8228)</p> <p>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있는날 특별공연 '월드 코랄 나잇' 19:3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제8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 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중 초대/김성만(010-4183-229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u>27</u> | <u>28</u> | | |
| <p>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고흐vs고갱' 19:30 중 3만원·2만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11:00 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 |

2

2019 FEBRUARY

부산시민회관

BUSAN CITIZEN'S HALL
A SCHEDULE OF
PERFORMANCES

대 대극장 **소** 소극장 **야** 야외광장



표 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를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MON

TUE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
2월 15일(금)-4월 30일(화)
일반 8천원, 패션전공 대학생 4천원,
초중고-경로우대 3천원, 미취학 아동 2천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 **관람시간**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7:00 입장마감)

※ **도슨트 운영**
월-목요일 오전 10:00, 오후 3:00
(15인 이상 단체 예약, 금-일요일 오후
1:00, 3:00(일반))

3

4

5

10

11

12

17

18

19

뮤지컬 '광화문 연가' 14:00
대 14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24

25

26

코리아 음악콩쿠르 09:30
소 무료/(주)한아방송(010-2548-8038)

WED

THU

FRI

SAT

1

2

6

7

8

9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19:00
대 9만원·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M&O VERITA 창단공연_뮤지컬 '빨래' 19:00
소 무료/M&O VERITA(010-7929-0199)

13

14

15

16

뮤지컬 '광화문 연가' 20:00
대 14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명작뮤지컬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10:00, 11:30
소 전석 1만5천원/극단 넘바곰비(02-882-9001)

뮤지컬 '광화문 연가' 15:00, 19:30
대 14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주)월드쇼마켓(1566-5490)

트럼펫터 부산양상블 & 부산낭만빅밴드
하모니 음악회 18:00
소 무료/부산낭만빅밴드(010-8503-7903)

20

21

22

23

제 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평화의 한민족, 영원무궁하리라' 19:30
대 무료/bcp부산평화연합(010-8793-8522)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박지하 커뮤니티' 19:30
소 3만원·2만원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630-5200)

제52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스라이 한겨레가' 19:30
대 2만원·1만5천원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6-8081)

코리아 음악콩쿠르 09:30
소 무료/(주)한아방송(010-2548-8038)

27

28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소 무료/모델리아예랑엔터테인먼트(201-0222)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피렌체, 단테 그리고
단막극의 전형을 보여준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

이의주의 100자 스토리 '잔니 스키키'

1299년, 피렌체 부호 부오조 도나티의 죽음, 일가친척들은 막대한 유산을 교회에 기부했다는 유언장을 찾게 되고 그 사실에 분노한다. 궁여지책으로 유언장을 위조할 재간꾼 잔니 스키키를 부르게 되고 그는 부오조로 변장, 공증인과 증인들을 불러 유언장을 다시 만든다. 유언 중 그들에게 각각 유산을 남기지만, 결국 교묘하게도 가장 좋은 알짜배기 재산은 본인이 차지한다. 자참금을 요구하는 도나티 집안의 리네토와 결혼해야 하는 그의 딸 라우렛타 때문이니 잔니 스키키는 요새 말로 딸 바보 원조격이다. '단테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막이 내려간다.

피렌체(Firenze, 영어로 플로렌스 Florence)를 생각하면 수많은 것들이 연상된다. 이탈리아어로 '피오레(Fiore)', 즉 '꽃'이라는 어원에서 이름을 따온 이 도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밀라노에서는 남동쪽, 로마에서는 북서쪽으로 각각 대략 2~3백km 떨어져 있는, 로마와 밀라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피렌체는 요즘 우리에게서 명품의 집결지로 유명(?)하지만, 유럽우주국(ETA)의 헬리 혜성 탐사선 이름으로 잘 알려진 지오토(Giotto di Bondone, 1267~1337),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 1377~1446),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주장으로 오랫동안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근대 정치학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군주론'을 집필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 '그래도 지구는 돈다!'의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등과 무엇보다 1400년부터 1785년경까지 무려 4세기간 피렌체를 좌지우지한 메디치 가문과 전 세계 예술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단테

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시작점'이란 그 의미 자체가 큰 도시다. 로마가 '정치', 밀라노가 '경제'라면 피렌체는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이탈리아를 상징하기도 한다. 현재 피렌체는 유네스코에 의해 도시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 의미가 큰 도시인데,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이탈리아어로 리나쉬멘토(rinascimento)의 부흥을 이룬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집안이었다.(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끝없이 꼬리를 물지만, 역사칼럼이 아니니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옥같은 다큐와 한국의 검색엔진을 찾으시면 도움이 되실 듯)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예술 사랑으로 후대 자손들과 도시, 그리고 이탈리아는 엄청난 부가가치로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예술 후원에 관한 내용은 언젠가 다른 지면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피렌체의 인물은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이다.

푸치니는 전 세계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media)'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 3부작을 작곡했다. 이는 신곡에 나오는 '인페르노(Inferno)-지옥편;외투(Il tabarro)', '푸르가토리오(Purgatorio)-연옥편;수녀 안젤리카(Suor Angelica)', '파라디조(Paradiso)-천국편;잔니 스키키(Gianni Schicchi)'이다. 동일한 캐스팅으로 세 작품을 동시에 상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잔니 스키키'가 가장 인기가 많아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 또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짝을 지어 두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예전에는 '팔리아치'와 '카발레



리아 루스티카나'가 짝을 지었는데 두 작품 모두 비극이어서 즐거운 코미디극인 '잔니 스키키'가 '팔리아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자리를 대신한다.) 사실 피렌체를 공부하고 싶으면 '잔니 스키키'를 잘 살펴보면 된다.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관한 언급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등장인물 중 가죽염색공 'Gucci'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를 거듭해 복수형인 'Gucci'라는 집안이 된다는 재밌는 비밀을 찾을 수 있다. 고교시절 단테의 '신곡'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이해가 안됐는데 사실 지금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ㅎㅎㅎ 분명한 것은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피렌체를 보면 도시의 아름다움에 그냥 넋이 나간다. 그게 바로 피렌체이다. 더 이상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랴! 그 아름다운 피렌체를 멀리하고 라벤나에서 생을 마감한 단테보다는 시아가 탁 트인 광장에서 아름다운 지금의 피렌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더 행복하다. 피렌체와 단테 얘기를 하다 보니 내 이야기는 뒷전이 되어 버렸다. 이제부터는 나의 백 스테이지 스토리이다.

2006년 늦여름, 국립오페라단이 그 다음 년도인 2007년 '잔니 스키키'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동시에 상연하되 따로 연출을 맡긴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연출자를 섭외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외부에서야 당시 국립오페라단 상근연출인 내게 무조건 작품이 맡겨질거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국립오페라단 내부 연출가는 나 밖에 없었지만, 국내의 훌륭한 수많은 연출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감독과 국장은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곤 한다. 같은 편(?)이라 작품을 주는 게 아니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관련 서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몇 개월 동안 보이며 내가 적임자라 계속 어필을 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의 막간곡 '인테메조의 아름다운 음악은 늘 내게 큰 영감과 환상을 가져다 주었고, 규모있게 구성된 합창이 부르는 주옥같은 곡들은 연출로서 언제나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조수미가 부른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O mio babbino caro)'라는 명 아리아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잔니 스키키' 역시 재미있고 언젠가는 내가 연출해야 하는 작품임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내 희망작품이었다. 얼마 후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현재 광주시립오페라단 단장으로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실력있는 정갑균 연출가가 맡게 되었고, 나는 '잔니 스키키'를 하게 되었다. 사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공연되기 쉬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난 정갑균 선생님이 부러웠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그래도 부러웠고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 멋진 작품을 맡지 못해 조금은 아쉬웠다.

국립오페라단 내에 있는 내 사무실에서 '잔니 스키키'에 관한 자료 조사와 수많은 책들과 작품 자체의 원어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이 작품을 왜 내게 맡겼는지 이유를 서서히 찾기 시작했다. 30대 초반을 갓 넘은 중반으로 가는 연출가로서 극과 음악의 일치를 통해 오페라 무대에 구현시키는 피나는 훈련을 나는 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탈리아 전통 연극의 형식인 '코메디아 델 아르테(Commedia dell'arte)'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 세상의 모든 작품들이 그러하지만 이 작품은 공연시간이 대략 70분



정도이나 한순간도 동선의 어긋남 없이, 정신없이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움직이는 모습을 무대에 담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작품이었다. 성악가가 아니라 연극배우라고 할 정도로 총 15명의 배역들이 설 없이 노래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움직여야만 하는 작품이었다. 사실 이 작품 이후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 움직임의 다이내믹과 복잡함에 있어서는 '잔니 스키키'를 따라 올 수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야말로 '수학의 정석', '성문기본영어'인 셈이다. 연출가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안에서 창조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야 하는 작품을 나는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나의 연출 바이오그래피와 필모그래피를 뒤돌아보면 이때부터 참신함과 독특함이라는 내 아이템에 텍스트에 의한 기본구성에 대한 이해와 고뇌를 더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나에게는 보석과 같은 작품이고 연출가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한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탐욕에 관해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철학적 물음으로 나의 사상과 가치는 더욱 견고해지고 유연해졌다. 그럼 이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작품을 연출했을까? 그것은 단막극 이야기 시즌 2, 다음 달로 넘어간다.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모든 것이 있는 그곳

파리, 루브르 박물관 (Le musée du Louvre)

글·사진 김성민 (주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인문학 강사)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얼마 전 프랑스에서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2018년 한 해 동안 파리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에 무려 1,020만 명이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 통계는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테러 위험이 줄어든 점도 있겠지만 2018년 루브르의 작품들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대단한 성공을 거둔 팝스타 비욘세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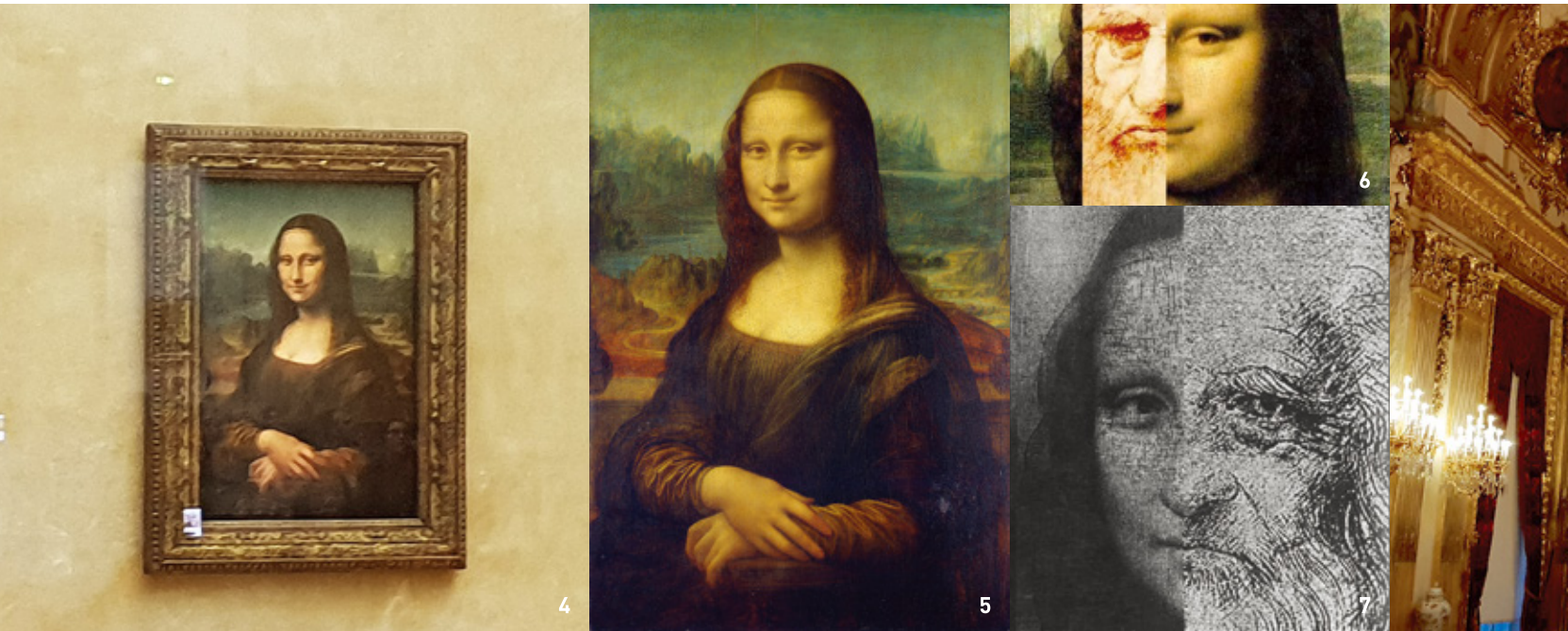
3



- 1 루브르 박물관 전경
 2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타워
 3 루브르 박물관 입장을 기다리는 관광객

파리 중심부를 관통하는 센 강변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은 원래 존엄왕으로 불리는 필리프 2세(Philippe II, 1165~1223) 때부터 태양왕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 때까지 프랑스 왕들이 기거하는 궁전이였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1678년 왕궁을 베르사유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루브르 궁전은 대중들을 위한 미술품을 공개하는 장소로 변해간다. 1792년 왕을 폐위시킨 프랑스 국민의회는 왕립 미술관의 성격이 강했던 이곳을 대중 미술관으로 개조했고 이후 나폴레옹의 문화재 약탈과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명작들로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1848년 이후 작품들은 오르세(1986년 개관) 미술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루브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끊임없는 증축을 진행하면서 1984년을 정점으로 미술관 전체 규모가 40헥타르 이상 확장되었다. 1989년 완성된 박물관의 입구와 같은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박물관은 드농(Denon)관, 리슐리외(Richelieu)관, 쉴리(Sully)관으로 나뉘지는데 회화 작품만 6,000여점에 이르며 전체 박물관의 면적은 축구장 25개에 해당하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만도 38만점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람을 위해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시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많은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4 모나리자 실제 전시모습 5 모나리자 6·7 늙은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보이는 모나리자 8 박물관 내부

조물주가 만든 세상을 탐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

모나리자의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빛나는 예술가이다. 그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호기심과 학문의 대상이었다.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죽을 때까지 관찰과 실험을 반복하며 메모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만도 7,000 페이지 이상이라고 한다. 그는 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동물, 식물, 조각,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지금까지 사용되는 냅킨, 포크가 500년 전 그의 발명품이라고 하니, 그는 진정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불릴만하다.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자신의 작품 속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본인이 즐겨 먹었던 장어요리를 집어넣는 유머러스한 사람이기도 했다.

레오나르도의 회화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푸마토(Sfumato 이탈리아어로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뜻) 기법이다. 대기원근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려지는 대상의 위치

에 따라 가까운 부분은 짙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먼 부분은 흐리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당시 화가들은 가깝고 먼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선명하게 그렸다고 한다. 레오나르도는 친구였던 보티첼리의 작품을 보고 대기원근법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망하기까지 했다.

두 번째로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작품에 황금비율(Golden ratio)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화가였다.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고안한 황금비율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비율이 5 : 8 즉 1 : 1.618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인데 이 비율은 당시 조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부활을 선언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도 대부분의 작품에 황금비율을 썼는데 이 황금비율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모든 인류의 얼굴이 표현된 모나리자

'모나리자'만큼 유명하면서 왜 유명한지 모르는 작품이 있을까? 실제 이 작품을 주문한 사람이나 돈을 지불한 사람의 기록조차



8

없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록은 1550년에 출간된 조르조 바사리의 '예술가 열전'이라는 책인데 바사리가 8살 때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에서 사망했고, 31년 후 책이 출판되었으니 바사리는 직접 모나리자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사실은 레오나르도는 1505년 즈음 피렌체에서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해서 1519년 프랑스에서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간직하고 있을 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사업가 프렌체스코 조콘도(Francesco del Giocondo)의 어린 부인이라 이탈리아에서는 조콘다 부인(La Gioconda), 혹은 그녀의 긴 이름(Lisa di Antonio Gherardini)의 첫 부분을 빼서 리자 부인(Mona Lisa)으로 불리는 그녀는 특히 오묘한 표정으로 인해 정말 다양한 평가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성스러운 성모 마리아로 비유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저속하고 비열한 여인이라고도 했다. 그녀의 심리상태 또한 알쏭달쏭한데 바사리의 글에 의하면 악사와 광대 때문에 웃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어딘가 슬퍼 보이며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그녀는 얼

마 전 자녀가 죽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도 한다. 최근 들어서 그녀의 입부분에 레오나르도가 서른 번에 가까운 붓 터치를 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분명 레오나르도가 그녀의 표정, 특히 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레오나르도가 즐겨 썼던 스푸마토 기법과 황금비율이 담겨져 있다. 또한 초상화가 생동감이 없어 보일까봐 배경의 지평선이 수평이 아니라 오른쪽이 조금 올라가게 그려 초상화의 생기를 더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 여인의 얼굴 속에서 남성과 여성, 청년, 노인의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표정 속에는 인류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 조물주가 만든 모든 부분에 호기심을 느꼈던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의 얼굴 속에 인류의 모든 얼굴을 집어 넣었던 것이다.

기타 등등. 스프가 식기 때문에

67세의 나이로 죽은 레오나르도가 남긴 마지막 글이다. 아마 글을 쓰고 있을 때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하녀가 불렀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보면 엄청난 천재였던 레오나르도도 우리와 같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야하는 일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가 마지막 순간에 신에게 받은 재능에 비해 자신이 더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 신과 인류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2019년도 벌써 2월이다. 우리가 레오나르도와 같이 큰 재능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순간에 레오나르도보다는 더 멋진 고백을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9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



9



Pohangs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난

겨울여행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과 떠나는 2019년 첫 테마여행이 지난 1월 11일 펼쳐졌다. 1월의 테마 여행지는 전국 최대의 일출 명소인 호미곶과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를 품고 있는 해뜨는 도시 포항.





- 1 포항의 랜드마크 '상생의 손'
- 2 새천년기념관 옥상전망대에서 바라본 호미곶 전경, 저 멀리 대보항 빨간등대가 보인다.
- 3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박물관



2019년 황금돼지의 기운으로 올해 테마여행의 첫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새해를 맞은 설레임과 희망을 안고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2시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새해 일출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호미곶.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에서 호랑이꼬리에 해당되는 호미곶은 해맞이 행사를 가장 크게 여는 곳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포항 관광의 1번지'라 불린다. 지난 1999년 12월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조성된 이 곳 해맞이 광장은 호미곶 등대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인 국립등대박물관과 포항을 홍보하는 새천년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해맞이 광장에 도착하자 그 유명한 바다 위 조각상 '상생의 손'이 회원가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금은 포항의 랜드마크가 된 '상생의 손'은 영남대학교 김승국 교수가 조각한 청동조형물로, 바다의 오른손과 광장의 왼손이 서로 마주보고 인류의 상생(相生)을 기원하고 있다.

첫 방문지로 국립등대박물관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전시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1985년 2월 개관한 국립등대박물관은 1982년 우리나라 최대의 유인등대였던 호미곶등대의 지방기념물 39호 지정을 기념해 건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으로, 우리나라 등대의 발달사와 각종 해양수산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국립등대박물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지난 2009년 12월 개관한 후 해맞이광장의 새로운 명소로 등장한 새천년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천년기념관은 포항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 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빛의 도시 포항'이라는 주제의 전시관을 비롯해 바다화석박물관, 영상세미나실, 시청각실, 도예공방체험관, 옥상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일반건물 6층 높이의 옥상전망대는 호미곶 일대 자연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정기회원들은 호미곶 일출광장과 바다에 세워진 '상생의 손'을 바라보며 올 한해 안녕과 건강을 빌기도 했다.

오후 첫 방문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로 자리잡은 (주)포스코.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로 설립, 2002년 3월 15일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한 포스코는 국내 최초의 고로(高爐:용광로) 업체로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의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다. 1998년 조강(粗鋼:보통의 강철 제조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괴(鋼塊)로 한 나라의 강철 생산량을 알 수 있다) 생산 기준 전 세계 1위의 철강회사로 성장했으며,

테마가 있는 여행



4 햇빛이광장의 새로운 명소 새천년기념관

5-6-7 국내최초의 기업역사관으로 (주)포스코 50여년 역사를 증언하는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된 포스코 역사관



현재 연간 4,100만 톤의 조강생산체제를 갖추고 세계 53개국에서 생산과 판매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에 도착하자 매마침 점심시간. 본격적인 견학에 앞서 코스코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포스코에서 파견된 해설사와 함께 본격적인 견학에 나섰다. 정기회원들은 버스에 탑승한 후 270여만평 규모에 세워진 포항제철소를 꼼꼼히 돌아보며 철을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두꺼운 철판을 뜨겁게 달군 후 여러개의 회전하는 롤 사이를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얇고 길게 만들어 두루마리 확장지 형태의 얇은 코일로 만들어내는 열연공정은 공장내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뜨거운 철 덩어리가 뿜어내는 열기와 냉각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가득한 공장 내부는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자동화 공정으로 실재없이 진행되는 생산과정에 회원가족들의 탄성이 쏟아진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강 불모지에서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한 포스코의 성공 역사를 보는 듯 했다.

공장 견학을 마친 후에는 국내 최초의 기업역사관으로 개관한 포스코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03년 7월 개관한 포스코역사관에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정부자료를 비롯해 (주)포스코 50여년 역사를 증언하는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다. 광장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 역사관 전시홀에 들어서자 해설사원들이 회원가족들을 반긴다. 창업전사, 창업기, 포항건설기, 광양건설기, 대역사 완성 이후, 테마존, 창의관, 청암관, 세계 속의 포스코 등 주제별 9개실로 구성된 전시실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40여분간 돌아봤다.

테마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시장. 50년 전 갈대밭이 무성했던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죽도시장은 현재 점포수만 1,200여개에 달한다. 싱싱한 제철 수산물뿐만 아니라 건어물과 농산물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면서 시장내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모처럼 시장 나들이에 신이 난 회원들은 저마다 한 손 가득 짐꾸러미를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2019년 황금돼지해의 힘찬 기운을 받으며 펼쳐졌던 포항 겨울여행. 기해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던 호미꽃의 신년 일출처럼 이번 테마여행은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3.8 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3주년 기념 '다시 떠나는 경주 수학여행'

매달 둘째주 금요일 펼쳐지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13주년을 맞아 테마여행 첫 출발지인 경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석굴암을 비롯해 굴불사지 사면석불, 탑곡마애조상군 등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사방석불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특징과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경주 도착, 황룡사역사문화관 탐방
- 11:00 굴불사지 사면석불 탐방
- 12:00 중식
- 13:00 탑곡마애조상군 탐방
- 14:30 석굴암 탐방
- 16:00 부산으로 출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들은 신청업서를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업서 · 전화 · 홈페이지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
607-6073, 6076

02 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 회원

- | | | |
|----------------|------------------|-------------|
| 김순배(해운대구 달맞이로) | 이정희(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 조영란(남구 신선로) |
| 박영미(남구 분포로) | 이지나(남구 분포로) | 채문식(남구 석포로) |
| 이상희(부산진구 동평로) | 임미화(동래구 삼어로) | |
| 이재일(남구 황령대로) | 정영미(해운대구 대천로) | |

기존 회원

- | | | |
|-----------------|----------------|---------------|
| 김경희(부산진구 동천로) | 김순자(남구 진남로) | 정인옥(해운대구 대천로) |
| 김길자(남구 우암로) | 김재화(서구 감천로) | 조경은(남구 오륙도로) |
| 김동례(금정구 금강로) | 서지현(서구 해돋이로) | |
| 김미향(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성은경(해운대구 달맞이길) | |

Invitation

| | |
|-----------------|--------------------|
| 가온아트홀 | 1600-1602 |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
| 공간소극장 | 611-8518 |
|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
| 글로벌아트홀 | 505-5995 |
| 금정문화회관 | 519-5651 |
| 더 무지카 아트홀 | 010-7191-2878 |
| 동래문화회관 | 550-6611 |
| 디코소극장 | 464-1996 |
|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
| 무대공감 | 623-0678 |
|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
| 미리내소극장 | 504-2544 |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
| 부산문화회관 | 607-6000 |
|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
| 부산시민회관 | 630-5200 |
| 부산예술회관 | 612-1372 |
|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
|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
| 소민아트센터 | 991-1100 |
| 숨사탕아트홀 | 922-4545 |
| 수아트홀 | 744-1415 |
|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
| 아트카페 움 | 557-3369 |
| 액터스소극장 | 611-6616 |
| 에저또소극장 | 852-9161 |
| 열린아트홀 | 527-0123 |
|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
| 영화의전당 | 780-6000 |
|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
| 울속도문화회관 | 220-5812~3 |
| 일터소극장 | 635-5370 |
|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
| 차성아트홀 | 723-7203 |
|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
| 초콜릿팩토리 | 621-4005 |
| 축제 소극장 | 661-6981 |
|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
|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
| 효로민락소극장 | 623-6232, 245-5919 |
|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
|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
|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
| KBS부산홀 | 620-7181 |
|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
| SM아트홀 | 1600-1602 |

to the Arts

프리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배우 차지연을 비롯해 리사, 민우혁, 박송권, 임현수, 장소연 등 6명의 뮤지컬배우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뮤지컬 넘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11인조 라이브 밴드의 생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TV 인기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여전사 캐츠걸'로 유명한 뮤지컬배우 차지연은 '복면가왕' 외에도 '불후의 명곡'에도 출연,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차지연은 2006년 뮤지컬 '라이온 킹'으로 데뷔한 후 마리아 마리아, 드림걸즈, 몬테크리스토, 서편제, 아이다, 레베카, 위키드, 마타하리, 광화문연가 등 수많은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영화, 방송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통하는 리사는 2007년 '밴디트-또 다른 시작'으로 데뷔한 후 대장금, 헤드윅, 광화문연가, 에비타, 영웅, 프랑켄슈타인, 레베카, 투란도트, 영웅, 록키호러쇼, 바님:위대한 쇼맨 등에 출연했으며,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리사는 지난 2003년 '사랑하긴 했었나요'로 데뷔, 정규음반과 다수의 싱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선사하는
2019년 특별한 음악선물
'뮤지컬 갈라쇼_슈퍼스타'가 2월 9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글을 발표한 가수이자 미술전공자로 화가로도 활동하는 등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살립하는 남자', '불후의 명곡' 등 TV 예능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민우혁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오랫동안 무명기간을 걸쳤으나 최근 안나 카레리나, 아이다,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유명 뮤지컬 주역으로 출연하며 대세 뮤지컬 배우로 거듭났다. 민우혁은 지난해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성공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기도 했다.

베테랑 배우 박송권은 그동안 노트르담 드 파리, 안나 카레리나, 나폴레옹, 명성황후 등 맡는 역할마다 개성있는 캐릭터와 안정된 연기력, 가창력을 바탕으로 뮤지컬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도 맑고 중후한 음색의 소유자인 임현수와 부드러운 소프라노 장소연이 앙상블 무대를 보여준다.

슈퍼스타

일시 2월 9일 오후 토요일 오후 7: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프리뷰



지휘 정치용



부산시립교향악단

지난해 1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는 정치용은 서울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 거장 미하엘 길렌으로부터 본격적인 지휘수업을 받았다. 유학시절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이 주최하는 국제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 세계 악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졸업과 동시에 오스트리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이후 잘츠부르크 국제어음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 스테이트 심포니,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했다. 귀국 후 관현악곡 및 오페라,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등 음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정치용은 특히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작품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초연한 지휘자로도 유명하다. 오페라 지휘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라보엠', '카르멘', '돈파스칼레', '루치아',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을 지휘했으며, 창작오페라 '행주치마 전사들(임궁수 작곡)', '백범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이동훈 작곡)', '메밀꽃 필 무렵(김현옥 작곡)', '천생연분(임준희 작곡)' 등을 초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국립오페라단에서 특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사랑받고 있는 지휘자 정치용이 부산시립교향악단 객원지휘자로 부산을 찾는다.

별 기획한 알반 베르크의 오페라 '보체크'를 국내 초연해 대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정치용은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제5회 김수근 문화상 공연예술상, 제3회 문화관광부 선정 젊은 예술가상, 제3회 뮤지컬 대상 음악상, 한국음악상 본상 및 제28회 음악평론가협회 제정 서울음악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브루크너 음악 해석에 탁월한 지휘자 정치용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줄 예정이라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브루크너에게 첫 번째 명성을 안겨준 '교향곡 제7번'은 평생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오르간을 연주했던 브루크너의 신을 향한 경배와 작곡가 바그너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다.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선율미가 가장 뛰어나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2악장은 임종을 앞둔 바그너를 위한 장송 행진곡이 담겨 있어 특히 유명하다.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일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월드 코랄 나잇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불가리안 보이즈 베를린과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가 출연, 각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2009년 독일 베를린에서 창단된 '불가리안 보이즈 베를린'은 불가리안 민속곡들을 주 레퍼토리로, 풍부한 불가리안 음악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불가리아 민속합창단이다. 불가리아 출신으로,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불가리안 민속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휘자 보르야나 벨리코바가 창단한 여성합창단으로, 창단 후 Berliner Festspiele, Fête de la Musique, Carnival of Cultures, Night of Choirs 등 다수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며 베를린 음악계에서도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불가리안 보이즈 베를린'은 특히 지난해인 2018년에는 그리스 프레베자국제합창제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불가리아 유명 가수 넬리 안드리바와 함께 세 번째 음반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매년 개최되는 발리국제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월드 코랄 나잇 불가리안 보이즈 베를린 &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

국내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불가리아와
인도네시아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월드 코랄 나잇'이 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합창페스티벌 프로젝트로 탄생된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인근 주변 국가들에서 모인 젊은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Studio Cantorum Bandung Choir & Orchestra의 설립자이자 음악감독, 지휘자인 토미안토 칸디사푸트라가 창단한 합창단으로, 그동안 한국 합창계의 대부라 불리는 지휘자 윤학원을 비롯해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 지휘자 마크 안토니 카피오,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음대 교수 미구엘 펠리페 등이 합창단을 이끌어왔다. 그동안 클래식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을 배우며, 세계 유명한 지휘자들과 함께하는 음악캠프나 연주무대를 통해 음악적 경험을 쌓아온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는 매년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 개최를 연 주, 특별콘서트에 서며 합창을 통한 음악교류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불가리아, 인도네시아의 전통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합창명곡을 통해 합창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할인 30%, 학생 할인 50%)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프리뷰

박지하:Communion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지하는 특히 최근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마켓인 '위맥스 WOMEX'와 '클래식컬렉스트 Classical:NEXT'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동시 선정되면서 전 세계 음악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첫 음반

을 발매한 음악그룹 '숨[su:m]'의 리더이자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한 박지하는 2016년 11월 정규 1집 음반 '커뮤니언 Communion'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솔로활동에 나섰다. 박지하는 이 음반을 통해 한국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재즈에서 주로 쓰이는 비브라폰, 베이스클라리넷, 색소폰 등의 연주를 더해 새로움과 보편성을 갖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독일의 월드뮤직 레이블인 글리터비트(Glitterbeat Record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발매되면서 영국의 BBC, 가디언(The Guardian), 미국 피치포크(Pitchfork) 등 세계 유명 매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박지하는 지난 한 해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체코 등 유럽투어와 미국 뉴욕, 워싱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1월 2집 음반 '필로스 Philos'를 발표했다. '필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박지하:Communion

—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이자 작곡가,
프로듀서로 해외무대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뮤지션 박지하가 부산을 찾는다.

로스 Philos'는 1집 음반과 달리 다른 연주자들과의 협업 없이 박지하가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그가 연주하는 여러 악기로 만든 소리와 시간, 공간 안에서 발현되는 소리를 쌓아 만든 총 8개 트랙이 담겨있다. 수록곡 중에서는 음반에 등장하는 모든 소리의 도착과 시작을 총합한 첫 곡 '어라이벌'을 시작으로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지나가는

스콜 속에서 만들어진 '선더 샤워(Thunder Shower)', 2015년 화엄음악제를 위해 한국을 찾은 레바논 예술가 디마 엘사예드가 박지하의 음악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직접 쓰고 낭독한 시를 담은 '이지(Easy)' 등이 눈길을 끈다.

부산관객과 만나는 첫 번째 공연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는 크리스 바가(비브라폰), 김오키(색소폰, 베이스클라리넷), 전제곤(베이스)이 함께 한다. 특히 1집 음반 발표 후 지난 2년간 함께 무대에 섰던 그들과의 마지막 무대로, 1집 수록곡을 중심으로 2집 신곡까지 박지하만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박지하:Communion'은 (재)부산문화회관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하는 '부산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며, 당일 티켓으로 그 날에 한해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인 '노만 파킨슨'展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일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본 공연 관람자는 공연 당일에 한해 '노만 파킨슨'展 무료 관람 가능)

연주자이자 작곡가, 프로듀서로 주목받는 뮤지션 박지하

부산에서 갖는 첫 공연 ___ 제 공연으로 부산을 찾기는 처음이라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에 설렘을 갖고 있어서 부산시민들과 저의 음악을 연주하고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커뮤니언 공연의 마지막 무대 ___ 지난 2016년 정규 1집 음반 ‘Communion’을 발표하고, 음반 작업을 함께 했던 연주자들과 지난 2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무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정규 2집 음반을 발표하면서 2집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로 또 다른 무대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집 음반의 공연 레퍼토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부산에서의 공연이 크리스 바가(비브라폰), 김오키(색소폰, 베이스클라리넷), 전제곤(베이스) 연주자분들과 함께 했던 그 여정의 마무리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공연의 마지막인 만큼 좋은 에너지의 공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리와 생황, 그리고 양금 ___ 중학교때 국악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악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피리라는 악기를 알게 되었고, 작지만 알찬 소리를 내는 피리라는 악기의 야무진 매력에 전공 악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교에서 부전공으로 생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금은 제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학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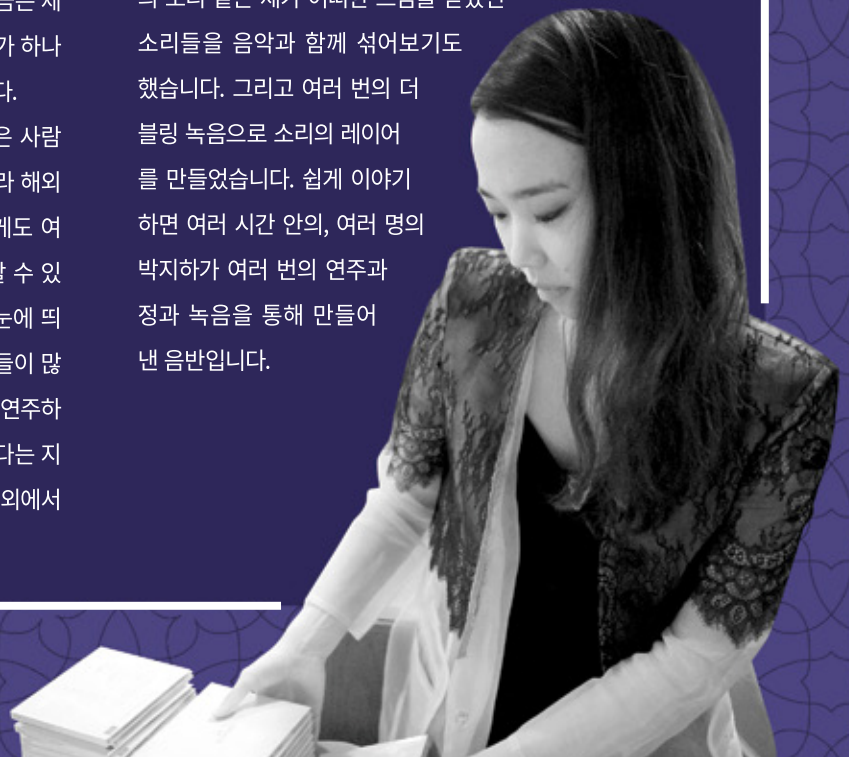
지금을 살아가는 나만의 음악 ___ 제 음악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다보니 국내의 무대뿐 아니라 해외에서 열리는 아트마켓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아트마켓의 공식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계기로 음악시장 관계자들의 눈에 띄면서 해외 무대에서도 저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국악기로 연주하지만, 제가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은 국악, 즉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음악이라기 보다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어법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해외에서

도 처음에는 국악기의 음색을 신기해하고 특이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음악으로서 즐기고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연주와 작곡, 그리고 프로듀서 ___ 제 이야기가 담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음악 만들기를 시작했고, 그것들을 가장 잘 알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 또한 저 자신이기엔 자연스럽게 연주와 작곡, 프로듀서의 역할을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악을 만들 때, 관객들이 들어서 무리가 없고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엄청난 기교나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하기 보다 점점 더 덜어내고 심플한 음악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만들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힘이 많이 빠지고 좀 더 단순해진 느낌입니다. 제 음악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저 역시 어렵지만, 제 삶에 따라 음악도 변화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긴 호흡으로 채워놓은 음반 ___ 1집 음반을 발표하고 지난 2년동안 여러 연주자 분들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했어서인지, 이번 2집 음반에서는 다시 혼자 돌아와 무언가를 차분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반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만의 호흡으로 채워 넣게 되었습니다. 피리, 양금, 생황 등 제가 연주하는 악기로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엠비언스 사운드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고, 빗소리나 도시의 소리 같은 제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던

소리들을 음악과 함께 섞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더블링 녹음으로 소리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시간 안의, 여러 명의 박지하가 여러 번의 연주과정과 녹음을 통해 만들어낸 음반입니다.



프리뷰

로맨틱 프라하



‘로맨틱 프라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변애영,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이성주, 김영준, 비올리니스트 엄광용,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플루티스트 다비데 포르미자노가 출연, 체코의 국민작곡가 드보르작의 곡을 비롯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깊은 울림과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를 가진 피아니스트라 평가받는 변애영은 그동안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모스크바 심포니오

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말메종 국립음악원, 니스 국제음악아카데미 교수로 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가람은 프랑스 일 드 프랑스 국제콩쿠르에서 1위 수상하고 앙상블 뷰티풀 랑데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열적인 연주로 ‘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로랑 코르샤는 프랑스 롱 티보 국제콩쿠르, 이테리 파카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유럽의 까다로운 평론가들을 사로잡아왔다.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이성주는 비에나프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프라하

—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이 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서 인상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은 불가리아 Pancho Vladigerov 국제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회 프라하의 봄 국제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비올리니스트 엄광용은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으로 있다. 1966년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세계적인 연주자로 발돋움한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는 헬싱키 시

벨리우스 음악원 교수로 있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실내악페스티벌인 핀란드 난탈리 뮤직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플루티스트 다비데 포르미자노는 랑팔 국제콩쿠르 특별상, 고베 국제콩쿠르 우승, 뮌헨 ARD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드보르작의 ‘피아노와 플루트를 위한 소나티네 작품 100’, ‘슬라브댄스’, ‘피아노 5중주 작품 81’를 비롯해 요제프 수크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발라단 라단조’, 그리고 러시아 작곡가 퀴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플루트를 위한 5 petites duos 작품 56’,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3중주 엘레지 작품 1’를 들려준다.

일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송인문화재단 010-7482-8228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해만 아동학대 신고수가 2만2천건을 넘어서고 사망아동 수 역시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아동학대와 그 예방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로, 해외파 성악가들로 결성된 '케이클 싱어즈(K-Classic Singers)'가 함께 한다. 소프라노 이연정, 강부영, 이경희, 테너 이동명, 서승환, 바리톤 김민형, 박세훈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유학과 성악가 6명으로 구성된

'케이클 싱어즈'는 완벽한 기량과 감성으로 오페라, 뮤지컬은 물론 팝, 재즈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케이클 싱어즈'를 이끌고 있는 테너 이동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다. 테너 서승환은 서울장신대학교와 이태리 로비고(F. Venzz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방송합창단(RBB), 도이치 오페라 객원단원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Frosinone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리톤 김민형은 이탈리아 발레리아 마르피나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단국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및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리톤 박세훈은 독일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아동학대 예방 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립오페라극장 객원가수로 활동한 바 있다. 소프라노 이연정은 연세대학교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밀라노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밀라노시립합창단 솔리스트로, 소프라노 이경희는 숙명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 성악과,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타마노 성악협회, 라티나 성악협회 소속 가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소프라노 강부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헨델 '올게하소서', 카티니 '아베마리아'를 비롯해 치치치카, On my Own, 거위의 꿈, 지금 이 순간, 나가거든, You Raise me up, 마법의 성, When you wish upon a star, I have a Dream,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뮤지컬 넘버,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동반 가족과 다자녀가정, 임산부의 경우 입장료 천원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내 작은 이야기

일시 3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입장료 전석 1만원(어린이동반 관람객, 임산부, 다자녀가족 전석 1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프리뷰



지휘자 최수열



피아노 손열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한, 봄맞이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한, 봄맞이'가 3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 없는 테크닉,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 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봄의 전령사'로 함께 무대에 선다.

첫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로 새봄의 시작을 알린다. 원래는 당시 유명했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가수 비앙카 비앙키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느리지만 강렬한 서주로 시작된 후 반복되는 선율로 봄의 싱그러움과 흥겨움을 노래한다. 이어지는 곡은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4번'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이나 낭만적인 선율과 열정적인 곡상이 잘 어울린 명작으로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피아노협주곡 중 한 곡이다.

협연자 손열음은 지난 2011년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후 로린 마젤, 네빌 마리너, 드미트리 키타옌코, 발레리 게르기예프, 로렌스 포스터, 유리 바슈멧 등의 지휘로 뉴욕, 로테르담, 이스라엘, 체코 필하모닉, NHK심포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쾰른 귀체니히, 베를린 콘체르트하

우스,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및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등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손열음은 제1회 '금호음악인상', '난파음악상',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고 동아일보 '한국을 빛낼 100인'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음악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2부 첫 곡으로는 빈 왈츠에 대한 예찬이자 라벨이 평소 존경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가진 '라 발스'를 들려준다. 신춘음악회의 마지막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1번 '파리로 장식한다. 고향 잘츠부르크를 떠나 만하임을 거쳐 파리까지 여행하며 독립된 작곡가로서의 길을 택했던 모차르트가 파리에서 작곡한 '교향곡 제31번'은 만하임 악파의 음악양식과 프랑스적인 표현이 결합된 작품으로, 그의 교향곡에서 클라리넷을 처음으로 사용한 2관 편성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한, 봄맞이

일시 3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2019 우리춤 산책



‘우리춤 산책’은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정기공연에서는 만날 수 없던 단원들의 우리춤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자리이다.

올해 무대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를 비롯해 산조춤, 통영 살풀이, 훈령무, 소고춤, 원향지무, 장고춤, 태평무, 진도북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승무와 산조춤, 통영 살풀이, 원향지무, 장고춤은 이틀에 걸쳐 두 명의 단원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춤사위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이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매년 ‘우리춤 산책’에서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려지는 ‘승무’는 한국무용의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정수가 잘 표현된, 민속무용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높은 춤으로, 올해 무대에서는 춤사위가 자유분방하면서 다양한 발디딤새가 특징인 이매방류 승무를 단원 황동하(7일), 장래훈(8일)이 선보인다. 거문고 산조를 반주음악으로, 몸의 기(氣)와 리듬을 자유롭게 표현한 ‘산조춤은 윤은하(7일), 정진희(8일)의 춤사위로 펼쳐진다. ‘살풀이춤은 곱판에서 무당이 나쁜 기운을 풀기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

—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이 3월 7일과 8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위해 추던 즉흥무에서 유래된 춤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통영지역의 향토색을 입혀 애절함을 더한 ‘통영 살풀이(엄옥자류)’를 단원 전혜련(7일), 박창희(8일)가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원향 엄옥자 선생이 승전무 중 북춤의 무거우면서도 우아한 춤태와 칼춤의 아름다운 기교, 통영기방예술의 진춤 등을 바탕으로 창작한 ‘원향지무’는 단원 권봉정(7일), 김동숙(8일)의 춤사위로 무대에 오른다. 장

고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펼쳐지는 ‘장고춤’은 단원 김주령(7일), 김미란(8일)의 무대로 선보인다.

이밖에 7일에는 한성준 선생이 구한말 군대의 훈련장면을 보고 창작한 ‘훈령무’와 농악 벽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을 짜임새있게 구성한 ‘소고춤(김묘선류)’을 단원 강모세, 김시현의 춤사위로 선보인다. 8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와 북춤 중 유일하게 양손으로 북채를 들고 추는 ‘진도북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태평무’는 단원 이현주가, 현란한 춤사위와 신명나는 가락이 돋보이는 ‘진도북춤’은 단원 김주령, 권봉정, 오수연, 김시현, 김수잔의 춤사위로 관객과 만난다.

일시 3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기해년 새해 행복을 기원한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18 송년음악회



◆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 팀원 김동녕

2018년이 끝나가는 1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99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송년음악회 ‘구름에 달가듯이 & 한국의 소리와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올해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채웠고 화려한 객원연주자들이 무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140여 분간 진행된 이번 공연의 첫 곡은 국악관현악 ‘세줄-여민락을 위한 Bolero’였다.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민영치의 작품으로 여민락 초장 중 다섯, 여섯 일곱 줄째의 선율을 반복 그리고 악기가 하나씩 등장하고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 OST 같기도 게임 음악 같기도 한 신비함 또는 풍요로움, 평화로운 느낌의 곡이다. ‘우리비나리’는 소리꾼 3명이 협연한 곡으로 원래 고사를 지낼 때 쓰는 고사문을 사물놀이 반주로 노래하는 원래의 ‘비나리’와는 달리 이번 ‘우리비나리’는 관현악과 어우러져 화려한 선율과 리듬감을 통해 더욱 웅장해지고 화려해졌으며 3명의 소리꾼에 의해 더욱 간절한 느낌의 곡이 되었다. 특히 우리 역사의 큰 줄기를 오늘의 시작으로 정리하고 소원을 비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날 공연의 의미를 한층 더 했다.

정가를 위한 국악관현악 ‘별한’은 대구시립국악단 이정화 단원의 작품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관현악으로 처음 연주되었다. 이곡은 가곡을 기반으로 만든 곡으로 화려하지만 서글프고 소녀같지만 강인한 느낌의 곡으로 남자 부분 여자 부분이 나올 때 악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며 각각을 표현해 뮤지컬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었다. 이어서 연주된 남해안 별신굿을 위한 ‘맞이’는 남해안 별신굿 중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굿 중에서 조상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가망굿’을 중심

으로 소리꾼 김용호가 징을 치며 하는 소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남은 2018년과 다가올 2019년의 행복을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곡이었다. 합창과 진도 씻김굿 관현악을 위한 ‘진혼’은 ‘진도 씻김굿’을 모티브로 쓴 곡으로 가톨릭 미사의 합창가사와 진도씻김굿과 ‘나무아미타불’을 차용하여 종교를 넘어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곡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과 박천음, 박영순 소리꾼의 소리가 다른 갈래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내면서 애잔하지만 음악이 같은 소리로 어우러져 곡의 애잔함과 신성함이 공존했다. 마지막곡인 국악관현악을 위한 장구협주 곡 ‘아홉(A-HOPE)’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곡답게 가장 밝고 신명나는 곡이었다. 화려한 장구연주 그리고 색소폰과 국악 관악기와 어우러져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한층 더 보여주었다. 특히 아홉은 숫자 9와 희망의 중의적인 표현으로 199회를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번 연주와 가장 어울리는 곡이었다.

‘구름에 달가듯이’ 라는 말은 박목월의 시 ‘나그네’중에서의 한 구절로 남도의 자연 배경으로 유유자적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구름에 비유한 표현으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은채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은 우리의 한국음악현실 특히 관현악단 현실에 가장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악관현악단은 조선시대의 음악을 하는 단체가 아닌 창조적인 음악을 하는 단체다. 그러니 전통의 뿌리는 지키지만 현대적인 또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단지 서양음악과 구별을 둔 관현악 그리고 우리 것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인 변화는 필요하다. 특히 이런 시도가 국악관현악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200회 정기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이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국악관현악 단체로 더욱 거듭났으면 한다.

희망과 열정의 공감을 선사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2019 신년음악회



◆ 음악평론가 **서종우**

예년에 비해 포근했던 날씨 속에 음악을 통해 새해의 희망을 찾고자 방문한 사람들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547회 정기연주회로 펼쳐진 ‘2019 신년음악회’가 2019년 1월 18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린 것이다. 매년 지역의 음악애호가들에게 희망의 선율을 선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는 올해 좀 더 젊은 패기와 세련된 실력으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약간의 떨림과 설레임을 안고 무대에 오른 지휘자는 이내 분위기를 다잡고 부드럽고 섬세한 지휘로 긴장된 분위기를 편안하게 풀어나갔다. 전반부의 첫 번째 무대를 연 작품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의 평화를 담고 있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이었다. 단원들은 첫 곡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하면서 안정적인 연주로 여유있게 음악을 빚어냈으며, 세밀한 연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표현함으로써, 종교적이면서 목가적인 분위기가 주는 잔잔한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물하였다.

이어진 무대는 이날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를 차지했던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연주되었다. 이날 바이올린 협연은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 우승과 함께 세계적인 연주자로 입지를 다진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맡았다. 1악장부터 화려한 바이올린 카덴차 연주를 안정적으로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는 폭발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폭넓은 다이내믹으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으며, 바이올린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절묘한 대비감을 보여주며 서로가 마치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것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적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 2악장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부드럽고 세밀한 음색 조절로 더욱 빛이 났다. 특히 지

휘자와의 미묘한 호흡은 관객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더욱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어택과 함께 시작한 3악장은 화려한 바이올린 카덴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화려하고 폭발적인 기교는 가히 압권이었으며, 절묘한 리듬 처리와 때때로 분출되는 폭발적인 음량은 관객을 압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날 빈틈없이 대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무려 다섯 번에 걸친 커튼콜로 혼신의 연주를 보여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후반부 첫 곡은 푸치니의 ‘교향적 기상곡’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세련되면서 웅장한 음향으로 관객들에게 새해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는데, 마치 2019년도 부산시향의 열정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지휘자의 다이내믹하면서 간결한 지휘는 관객들이 음악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연주곡으로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이 연주되었다. 멋진 팡파르로 시작된 연주는 관악기의 특징적인 셋잇단음을 타고 현악기의 선율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되었다. 타악기와 관악기를 중심으로 화려하면서 밝고 정열적으로 휘몰아치는 후반부의 합주는 작렬하는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을 연상시킬 정도로 많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19 신년음악회는 관객들에게 희망과 열정을 동시에 보여준 공감의 음악회였으며, 그들과의 음악적 소통을 통해 젊은 패기와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맘껏 보여준 축제의 장이기도 하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멋진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관객과 소통하며 음악적 감동을 공감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일 시 2018년 12월 24일(월)~2019년 3월 3일(일) 전시실
입장료 아동 2만3천원, 성인 1만7천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문 의 (주)PMC네트웍스 1599-7372



밀가루를 이용해 보고, 만들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오감만족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밀가루로 그림을 그려보는 ‘가루나라 방앗간’과 밀가루 반죽과 잡곡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빵을 만들어보는 ‘빵빵나라 제빵소’,

어머머마하게 커다란 반죽으로 국수가락을 뽑고 집, 자동차, 신발 등을 반죽으로 표현하는 ‘반죽나라 국수가게’, 통밀밭장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통밀나라 정미소’를 차례로 이동하며 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19년 기획공연 I
극단 에저또 어린이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일 시 1월 22일(화)-3월 22일(일) 오전 11:00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2019년 첫 작품으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극단 에저또가 제작한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은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아닌 타임머신을 타고 종횡무진 달리는 꼬비깨비들이 펼치는 신나는 시간여행을 그린 창작뮤지컬로, 만화같은 캐릭터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주제로 노래하는
브런치 콘서트

일 시 2월 14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극장 로비
입장료 전석 1만원(선착순 70석 한정, 간식 및 커피 제공)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5-6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시립합창단이 공연장이 아닌 대극장 로비에서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사랑의 주제로 노래하는 브런치 콘서트’.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을 위한 사랑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선희, 송강수 특별출연으로, 순수한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비롯해 판소리 ‘사랑가’ 등을 들려준다.

- 지휘/전진(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 독창/김태우
- 듀엣/권순유·장용근, 김창돈·남순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브루크너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1~3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사랑받고 있는 지휘자 정치용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하는 특별한 무대.

지휘자 정치용은 지난해 1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펼치는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곡가 브루크너에게 첫 번째 명성을 안겨준 작품으로, 신을 향한 경배와 작곡가 바그너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는 ‘교향곡 제7번’을 들려준다.

맹재빈 색소폰 귀국 독주회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맹재빈 010-5575-3704



프랑스 CRD du Val Maubue에서 디플롬을 취득하고 졸업한 색소폰리스트 맹재빈 귀국 독주회. 맹재빈은 그동안 제27회 국제학생콩쿠르 전체 2위, 제41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전체우수상, International Adolphesax Compétition 본선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오르세 미술관에서 열린 Paris-Orsay en Fête 초청연주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루치아노 베리오/Sequenza IX
글린카/비올라 소나타 라단조
앙리 토마시/콘체르토 중 ‘안단테와 알레그로’
크리스티앙 루바/11th Etude ‘STAN’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1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

일 시 2월 17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3천원
문 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86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무대 ‘평화 콘서트’.

지난해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1주년을 기념하며 평화와 화합을 되새기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산 출신 성악가가 출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전달하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가수였던 ‘볼빨간 사춘기’, 성화 봉송에 참여했던 데이브레이크의 축하무대가 펼쳐진다.

KNN과 강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제6회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일 시 2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초대(KNN 홈페이지에서 초대권 신청)
문의 KNN 850-9568



강림문화재단이 매년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회로, 교육적이면서도 유쾌한 클래식 명곡을 모아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여섯 번째 무대.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로 클래식 대중화의 길을 연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고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깊은 감성의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타고나 재능과 남다른 열정의 젊은 피아니스트 박세준,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는 색소폰리스트 황동연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금난새 ● 메조소프라노/백재은
- 피아노/박세준 ● 색소폰/황동연
- 연주/KNN방송교향악단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프라하

일 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의 송인문화재단 010-7482-8228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을 연주해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프라하’.

지난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열렸던 ‘프랑스 실내악의 밤’을 시작으로 매년 수준 높은 앙상을 무대를 선사해온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변애영, 김가람,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이성주, 김영준, 비올리스트 엄광용,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 플루티스트 다비데 포르미자노가 출연, 체코의 국민 작곡가 드보르작, 수크의 곡을 비롯해 C. 퀴, 라흐마니노프의 곡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재)부산문화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월드 코랄 나잇
 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 &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

일 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가 있는 날 30%, 학생 본인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국내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불가리아와 인도네시아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월드 코랄 나잇’.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진행되는 ‘부산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마련되는 ‘월드 코랄 나잇’에서는 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과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가 출연, 각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보르야나 벨리코바(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 토미안토 칸디사푸트라(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

제8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 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김성만 010-4183-2293



(사)송인문화재단이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마련해오고 있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2019년 무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사)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한국 최초로 색소폰 박사학위(미국 신시네티움대)를 취득한 색소폰리스트 윤여민의 특별출연으로 웅장하면서도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들려준다.

- 피아노/권준

제13회 부산진구립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진구립 라온소년소녀합창단 010-2646-6289



지난 2007년 초등학교, 중학생 80여명으로 창단한 부산진구립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12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빈소년합창단, 생마르크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과의 협연무대, 일본지진피해 돕기 MBC-TV 자선공연, 을숙도소년소녀합창대축제, 부산청소년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지휘/홍지형 ● 반주/박솔희
- 지도/강송희, 김민진(노래), 안희경(안무)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고흐 vs 고갱

일 시 2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그림을 보며 클래식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미술작품을 보는 예술 융합 프로그램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_고흐 vs 고갱’.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초청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매진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무대로, 개성이 강한 고흐와 고갱 두 화가가 함께 고민했던 예술세계와 작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갈등을 주제로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양상블 1903’이 들려주는 라이브 클래식 연주도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 해설/조수현(클래식 큐레이터)
- 연주/양상블 1903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뮤지컬 갈라쇼 '슈퍼스타'

일 시 2월 9일 오후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선사하는 2019년 특별한 음악선물 '뮤지컬 갈라쇼_슈퍼스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배우 차지연을 비롯해 리사, 민우혁, 박승권, 임현수, 장소연 등 6명의 뮤지컬배우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뮤지컬 넘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윤정노 음악감독이 이끄는 11인조 라이브 밴드의 생생한 연주로 관객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M&O VERITA 창단공연
뮤지컬 '빨래'

일 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M&O VERITA 010-7929-0199, 010-3513-4410



부산. 경남지역 시민들과 전공자들이 모여 노래와 연기를 함께 배워가는 혼성합창단 뮤&오 베리타 (Music&Opera Verita)의 창단공연 '뮤지컬 빨래'.

뮤&오 베리타는 지난 2017년 11월 창단 후 그동안 '고성현과 노래하는 친구들', jtbc 팬텀싱어2 팀

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뮤지컬 '빨래'는 이주노동자 '솔롱고'와 비정규직 '나영'을 주인공으로, 서민들의 딱딱한 인생살이와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꾸준히 관객과 평단의 사랑을 받아왔다.

- 단장/이상민 • 부단장/장재희
- 총기획, 연출/노연정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16일 토요일 오후 3:00, 7:30, 17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시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발라드 장르의 음악으로 대한민국의 '팝 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가 故 이영훈의 명곡들로 제작된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공연.

1980~90년대 격변의 시기,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그 시절의 감성이 녹아든 무대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아련한 감성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검증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의 안재욱, 이경명, 강필석 등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실력파 배우들의 명연기와 검증화된 가창력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명작뮤지컬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11:30 소극장
입장료 전석 1만5천원(단체 6천원)
문 의 극단 님비콤비 02-882-9001



이탈리아의 동화작가 까를로 콜로디의 소설 '피노키오'를 새롭게 각색한 가족뮤지컬 '까를로의 피노키오 여행'.

작가의 이름을 딴 주인공 까를로가 피노키오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모험극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함께 즐기는 게임과 화려한 영상,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세트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연출/정상식
- 출연/서가영, 임보라미, 양동혁, 최윤종 외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 '노만 파킨슨'展

일 시 2월 15일(금)-4월 30일(화) 갤러리
입장료 일반 8천원, 패션전공 대학생 4천원, 초중고-경로우대 3천원, 미취학 아동 2천원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32



영국의 혁명적인 패션 사진가 노만 파킨슨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획전 '스타일은 영원하다(Timeless Style) in 부산'.

당시 전형적이었던 실내 스튜디오 촬영 형식을 깨고 역동적이고 생동감있는 야외 배경의 패션 사진을 만들어 낸 선구자인 노만 파킨슨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국의 낭만적인 전원 풍경과 활기찬 도시, 음산한 런던의 뒷골목부터 왕실 가족이 머무는 화려한 궁전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작업을 총망라한 그의 작품 150여 점이 선보인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입장마감 오후 7:00)

트럼펫터 부산앙상블 & 부산낭만빅밴드
하모니 음악회

일 시 2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낭만빅밴드 010-8503-7903



부산의 아마추어 트럼펫터 30명으로 구성된 트럼펫터 부산앙상블과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등 20의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빅밴드 부산낭만빅밴드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하모니 음악회'.

트럼펫터 부산앙상블과 부산낭만빅밴드의 음악감독 및 지휘를 맡고 있는 지휘자 정경윤의 연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단원들이 그동안 연습을 통해 익힌 실력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프랭크 시나트라 '뉴욕, 뉴욕'을 시작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평화의 한민족, 영원무궁하리라

일 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무료
문의 bcp부산평화연합 010-8793-8522



2019년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과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부산평화연합이 마련하는 제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평화의 한민족, 영원무궁하리라’.

음악과 영화가 결합된 콜라보 형태의 특별공연이 마련되는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919년 3월 1일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려 했던 ‘삼일정신’을 되새기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아 이 시대 애국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박지하:Communion

일 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본 공연 관람자는 공연 당일엔 한해 ‘노만 파킨슨展’ 무료 관람 가능)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한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지하는 특히 최근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마켓인 ‘위믹스 WOMEX’와 ‘클래시컬넥스 Classical: NEXT’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동시 선정되면서 전 세계 음악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크리스 바가(비브라폰), 김오키(색소폰, 베이스클라리넷), 전제곤(베이스)이 출연, 그들과 함께 작업한 1집 수록곡을 중심으로 최근 발표한 2집 신곡까지 박지하만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제52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스라이 한겨레가

일 시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단체 10인 이상 50% 할인)
문의 (사)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지난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유능하고 열정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동안 51차례 정기 연주회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대형 오페라 연주, 도시락보내기 등 자선음악회, 공기관 위탁 초청연주, 시민을 위한 순회야외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지휘/김광일 ● 작곡/박민음
- 합창/갈멜합창단, 신라대학교 총동창회 수련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기획공연 아동학대 예방 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일 시 3월 2일 토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어린이동반 관람객, 임산부, 다자녀 가족 전석 1천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630-5200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이연정, 강부영, 이경희, 테너 이동명, 서승환, 바리톤 김민형, 박세훈 등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유학파 성악가 6명으로 구성된 ‘케이클 싱어스’가 출연,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뮤지컬 넘버,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

일 시 3월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신명이 살아있는 흥겨운 춤사위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9 우리춤 산책’.

‘우리춤 산책’은 평소 실제 감성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춤을 연마해 온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정기공연에서는 만날 수 없던 단원들의 우리춤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묻어나는 자리이다.

올해 무대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비롯해 산조춤, 통영 살풀이, 훈령무, 소고춤, 원향지무, 장고춤, 태평무, 진도복춤 등 다채로운 우리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승무와 산조춤, 통영 살

풀이, 원향지무, 장고춤은 이들에 걸쳐 두 명의 단원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춤사위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이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7일 프로그램

- 승무(이매방류)(춤/황동하, 장고/김주연)
- 산조춤(춤/윤은하)
- 통영 살풀이(염옥자류)(춤/전혜련)
- 훈령무(송준영류)(춤/강모세)
- 소고춤(김묘선류)(춤/김시현, 팽과리/김미란, 장구/김윤호, 북/최의옥, 징/허태성, 나팔/한상훈)
- 원향지무(춤/권봉정)
- 장고춤(엄영춘류)(춤/김주령)

8일 프로그램

- 태평무(한영숙류)(춤/이현주)
- 원향지무(염옥자류)(춤/김동숙)
- 장고춤(배정혜류)(춤/김미란)
- 산조춤(춤/정진희)
- 통영 살풀이(염옥자류)(춤/박창희)
- 승무(이매방류)(춤/장래훈, 장고/허태성)
- 진도복춤(춤/김주령, 권봉정, 오수연, 김시현, 김수잔)

기타공연장

음악 | Music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상설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2일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수제천, 처용무, 판소리, 가곡, 강강술래, 농악

9일 영남의 음악과 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현악합주, 영제시조, 진주검무, 동부민요, 동래학춤/동래한량춤, 삼도설장구

16일 전통의 흐름을 찾아서

도드리, 청성자진한잎, 태평무, 산조, 경기민요, 버꾸춤

23일 기획공연_어린이극 '방귀쟁이 뽕함마니'

국립부산국악원 2019 설 절기공연
새해, 첫날

일 시 2월 5일 화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S석 1만원, A석 8천원
문의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2019년 기해년 설을 맞아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새해, 첫날'.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고향을 찾지 못한 이웃이 모두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국악

연주단이 출연, 새날의 소망을 담아 축원하는 창작무용 '진 진쇠'를 시작으로 판소리 '흥부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삼도설장구가락, 진주교방굿거리춤, 민속음악 '시나위', 경기민요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잣은 방아타령', 창작무용 '꽃나부동장놀이' 등 신명넘치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F1963 Music Festival - 부산

일 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F1963 석천홀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F1963 760-2604, www.f1963.org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해설로 누구보다 청중과 더 가깝게 소통해 온 지휘자 금난새와 젊은 실력파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실내악 페스티벌 'F1963 Music Festival'.

2월 9일 첫 무대를 시작으로 올 한해 4차례 펼쳐지는 이번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음악감독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솔리스트와 앙상블의 연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아르츠심포니 오케스트라, 성남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을 역임하고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첼리스트 최주연이 협연한다.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6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금정문화회관 519-5661

13일 소프라노 전지영과 피아니스트 정성흡의 독일 가곡의 밤

유럽을 중심으로 우아하고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드라마틱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온 소프라노 전지영과 피아니스트 정성흡이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슈만/여인의 사랑과 생애' 작품 42
리하르트 슈트라우스/4개의 마지막 노래

20일 클래식기타&클라리넷 듀오 리사이틀 'Guitar inet'

현대음악양상을 누벨바그 리더, 부산콘서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앙상블 라이덴샤프트, Players Becs, Sombli Trio,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과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상임지휘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로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김경태가 함께하는 듀오 무대.

프로그램

파가니니/칸타빌레
슈베르트/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사티/짐노페디 제1번
빌라 로보스/브라질 풍의 바흐 제5번 등



27일 최영식 비올라 리사이틀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최영식 독주회.

독일 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윈스터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계약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최영식은 2008년 귀국 후 실내악과 솔로연주자로 많은 오케스트라와 연주단체에 초청받아 무대에 섰으며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피아노/이진성

유니세프 기부겨울음악회
통앤제리스음악회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7:00, 1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관 소공연장
문의 통앤제리스엔터테인먼트 010-3069-9777



차세대 음악가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의 음악도들이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두차례 마련하는 기부음악회 '통앤제리스음악회'

● 15일 출연/박상현(피아노, 성악), 이효서(성악), 정솔지(피아노), 설경화(플루트), 신유정(바이올린), 윤지운(성악), 김주원(피아노), 김서연(플루트), 최은성(첼로), 최은진(비올라)

● 16일 출연/이예원(피아노), 최규범(피아노), 윤혜빈(성악), 이서연(성악), 손혜민(바이올린), 유동현(성악), 이정운(성악), 백제민(성악), 박서진(성악), 김지민(피아노), 김정욱(첼로), 김성현(성악)

● 사회, 해설/박상현

빈 스프라우츠 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콘서트

일 시 2월 17일 일요일 오후 4: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의 빈 스프라우츠 합창단 02-2062-4617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다수 무대에 서온 빈 스프라우츠 합창단은 2016년 필리핀 마닐라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17년 UN합창단 70주년 기념콘서트, 2018년 일본 도쿄를 거쳐 뉴욕 UN 본부, 카네기홀로 이어진 UN 평화콘서트까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발매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음반 '꿈속의 고향' 수록곡을 비롯해 괴테의 동일한 시에 슈베르트와 베르너가 곡을 붙인 '들장미', 브람스 '헝가리무곡',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제4회 나사나노 부산사대부고 동문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2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사대부고동문합창단 010-9219-4060



‘나의 사랑 나의 노래(나사나노)’라는 애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사대부고 동문합창단은 그동안 합창을 매개로 동문들간의 소통과 화합에 힘써왔으며,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모교 지원과 후배와의 소통과 교류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작가곡에서부터 가요, 팝송 등 다양한 곡을 듀엣과 합창으로 들려준다.

연극 | Play

브이브라스 제3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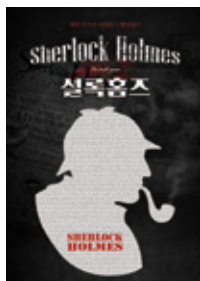
일 시 2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브이브라스 010-5879-3267



트럼펫 박춘호, 마창범, 혼 최희진, 트롬본 김정현, 튜바 김정훈, 퍼쿠션 김영훈으로 결성된 브이브라스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15년 2월 결성된 후 그동안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재즈, 국악을 테마로 다양한 장르와 색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있는 브이브라스는 특히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무대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추억’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경쾌한 금관앙상블만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추억 속 음악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연극 셜록홈즈

일 시 11월 1일(목)-2019년 2월 17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2:30, 5:00, 7:30(공휴일 공연시간 확인,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추리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연극 ‘셜록홈즈’. 천재 셜록홈즈에게 어느 날 ‘벌스톤, 살인사건, 조작되었다’는 수수께끼의 암호의뢰서가 도착한다. 수사관이 없는 셜록홈즈와 왓슨은 맥도날드 경감을 설득해서 벌스톤 영주관으로 들어간다. 밀실과도 같은 성,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짙어지는 의혹들 속에 사건은 점점 꼬여만 가고, 수사가 거듭될수록 셜록홈즈는 인간과 진실사이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문화윤곽 기획공연 2019 New Artist Festival

일 시 2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초대
문의 문화윤곽 010-3120-4116, 010-7573-3555



테너 우원석, 바리톤 장진웅, 피아니스트 김병기, 플루티스트 김혜정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 우원석은 동의대학교 예술종합콘서타토리 외래교수, 부산남성성악양상블, 해피양상블단원으로, 장진웅은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해피양상블, 부산솔리스트양상블 단원, 부산예술고등학교 합창지휘자로, 김병기는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MBC 가정음악실 ‘클래식101’ 진행자로, 김혜정은 브니엘예고 강사, 연주단체 Charms 대표로 활동하며 후진양성에 힘써왔다.

- 출연/문민성, 정성조(테너), 이혜경(소프라노), 김재원(바리톤), 이윤지, 이지은(플루트), 민성혜(피아노)

국민연극 라이어 1탄

일 시 11월 16일(금)-2019년 2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KNN 664-7880



속고 속이는 우리의 인간사를 통렬한 웃음으로 선사하는 레이 쿨리의 대표작 ‘라이어’ 1탄. 마음 약한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루 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그린 연극 ‘라이어’는 지난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35,000회 공연,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민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똘똘똘에는 메리, 스트리트헤에는 바바라, 두 부인을 두고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이중 생활을 하는 택시 운전사 존 스미스. 그의 완벽한 일정은 가벼운 강도 사건에 휘말리며 엇갈리기 시작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로 인해 상황은 더욱 더 꼬여만 가는데...

기타공연장

뮤지컬 복순이할배 시즌 12

일 시 12월 21일(금)-2019년 3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2/6일, 3/1일 오후 6:00, 2/5일, 월요일 공연 없음) 아트레볼루션 전용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아트레볼루션시어터 010-3946-1604



지난 2012년 초연무대 후 시즌 11을 거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트레볼루션의 창작뮤지컬 '복순이 할배'.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를 간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복순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게 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탓에 혼나기 일쑤다. 과연 태수는 불같은 성정의 할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연극 작업의 정식

일 시 1월 4일(금)-3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30, 6:30 (공휴일 공연시간 확인,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전석 3만원(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백만관객이 선택한 로맨틱 코미디극의 절대강자 '작업의 정식'.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작업의 정식'은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로맨틱 코미디극 씬이 필요해

일 시 2월 1일(금)-3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2월 4일-5일 공연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전석 3만원

문의 (주)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잡지사를 배경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잘나가나 점점 속물이 되어가면서 연애가 귀찮아진 이선균 취재팀장과 그 앞에 나타난 새파랄게 어린 인턴 이나영, 똑똑해서 안티도 많지만 알고 보면 허술한 김정화 편집장,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신입사원 김석원 등 네 주인공인 펼치는 밀당 극복기 로맨틱 코미디극으로, 전장터 같은 사회에서 혼자 보다 둘이 낫지만 섀넌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다.

뮤지컬 젬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부산

일 시 2월 15일 금요일 오후 8:00, 16일 토요일 오후 2:00, 6:30, 17일 일요일 오후 2:00, 6:3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예명 1644-3901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어워드에서 '최우수 뮤지컬'로 선정된 유쾌한 코믹 서스펜스 뮤지컬 '젬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부산공연.

190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가난하게 살아온 문티가 자신이 권세 높은 귀족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미디극으로, 가수 신화의 김동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여심을 뒤흔든 유연석,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 오만석,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이규형이 개성 만점의 연기를 선보인다.

가족뮤지컬 사과가 쿵!

일 시 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전석 2만5천원(예매시 1만원)

문의 극단 오즈 1661-6702



일본의 동화작가 타다 히로시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사과가 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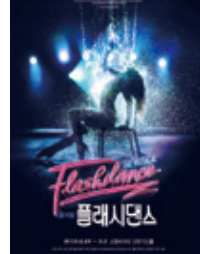
국내 최초의 '팝업 뮤지컬'로, 거대한 입체그림이 튀어나오는 기법을 도입한 '사과가 쿵!'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이야기와 단순한 구성, 다양한 노래와 율동체용으로 어린이관객을 사로잡는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과일 인형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개미, 나비, 토끼, 사자, 꼬리끼리 등 동물 친구들이 우적우적, 사각사각, 짹짹,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커다란 사과를 나눠먹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어린이들의 표현력을 키워준다.

뮤지컬 '플래시댄스' 영국 웨스트 엔드 오리지널 내한공연

일 시 2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3월 1일-2일 금-토요일 오후 2:00, 6:30, 3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이끈 영화 '플래시댄스'를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뮤지컬 '플래시댄스'.

제4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음악상, 주제가상, 제5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제3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편집상을 수상한 '플래시댄스'는 빌

보드를 휩쓴 히트팝의 향연과 강렬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댄스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팀이 내한, 차원이 다른 에너지로 지극껏 상상하지 못한 강렬하면서도 짜릿한 무대를 선사한다.

영화 | Movie

부산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노틀담의 곰추’

일 시 2월 19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회관 612-1372, 628-4371,
www.bsart.or.kr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대한 수다로 소통하는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 ‘시민과, 영화로 소통하다’ 2019년 2월 상영회.

영화 상영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부산영화인협회 서영조 회장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를 소개하며 관객들이 놓친 장면에 숨어 있던 의미와 이미지들을 짚어준다.

2월에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31년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노틀담의 곰추’(1956년 작, 감독/장 들라누와, 출연/지나 롤로브리자다, 안소니 퀴)를 상영한다.

행사 | Event

김옥균의 힐링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수강료 3개월 12만원
문의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에서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시인, 음악치료사)이 진행하는 감동이 있는 클래식음악 영상감상회. 클래식 애호가들이 꼭 만나 보고 싶던 해외의 최신 클래식음악 연주회실황을 알기 쉬운 해설과 함께 고품질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드볼작 ‘신세계교향곡’,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헨델 ‘수상음악’ 베토벤 교향곡 제7번, 비제 교향곡 제1번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쇼팽 피아노협주곡 제1번 등

콘서트 | Concert

이선희 콘서트 ‘Climax’ - 부산

일 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벡스코 제1전시장
입장료 VIP석 15만4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9천원
문의 누리티켓 1566-9621

박원 투어 - 부산

일 시 2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문의 (주)밝은누리 1566-9621

2019 벨 단독 콘서트
‘Bello’ 앵콜_부산

일 시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문의 (주)케이엔마스터 02-554-1510

시네바움·아트홀바움
2월 아카데미

일 시 매주 월-화요일 오후 7:30(4-5일 강연없음)
시네바움·아트홀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시네바움·아트홀바움 010-2774-3455

11일(월) 노동과 미술

- 강사/이성철(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2일(화) 무의식과 시각예술(1)

영화, 버닝과 곡성의 현실과 실재

- 강사/강성한(예술학박사, 부산대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18일(월) 이부현의 즉문즉답(5)

초월과 자유(2)_육조 혜능의 육조단경

- 강사/이부현(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인문학연구소 소장)

19일(화) 동양의 미학(15)

라소몽(羅生門)의 감각과 시선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문학평론가,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보헤미안 ‘랩소디 퀸’ 내한공연
프레디 머큐리 미공개 사진전-부산

일 시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퀸 팬클럽 ‘랩소디 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식 퀸 헌정밴드 ‘퀸 트리뷰트’ 부산공연.

국내 개봉 음악영화로 연일 흥행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화제작 ‘보헤미안 랩소디’의 열광적인 한국 팬들을 위해 첫 내한공연을 갖는 퀸 트리뷰트는 이번 무대에서 한국팬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와 더불어 지금껏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미공개 사진을 공연장로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25일(월) 정해성의 문화공간(5) 비혼(非婚)_‘차별’에서 ‘차이’로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문화공간RaumY대표)

26일(화) 호메로스 읽기(2)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일리아스’를 낳

고... — D.P. 아킬레우스

- 강사/김해룡(영문학 박사, 전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더뮤지카아트홀 성악아카데미
전상철 가곡교실 12기

일 시 2월 11일(월), 18일(월), 25일(월), 3월 24일(월)
오전 11:00, 오후 7:00 더뮤지카아트홀
입장료 수강료 7만원(교재료 1만원, 음료 포함)
문의 더뮤지카아트홀 010-7191-2878

기타공연장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 & 좋은만남' 선율에 실려오는 봄의 소리

일 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5일 강좌 없음)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입장료 무료
문의 정두환 011-574-0423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좋은 음악 & 좋은 만남. 2000년 3월 시작된 '좋은음악&좋은만남'은 매주 음악이 사람들 속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고 만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2월 12일(688회) 슈만 교향곡 제1번 작품 38 '봄'
2월 19일(689회) 슈만 교향곡 제2번 다장조 작품 61
2월 26일(690회) 이달의 책 읽기 '백년을 살아보니(김형석 저, 덴스토리)'

전시 | Display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8

일 시 10월 26일(금)-2019년 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박길주, 이고은 2인전

일 시 1월 3일(목)-2월 14일(목) 갤러리 아인
문의 갤러리 아인 747-2612

'LOVELY DAISY'展

일 시 1월 4일(금)-2월 6일(수)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무지크바움 인문학 강좌

일 시 12일(화) 오후 7:30, 13일(수) 오후 2:00, 22일(금)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전석 1만5천원
문의 무지크바움 070-7692-0747



12일(화) 오후 7:30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제38강 교향곡과 가곡의 거장, 현대음악의 선구자 '구스타프 말러 II' 세기말의 정서를 그려낸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현대음악의 선구자 말러의 삶과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광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38번째 강좌.

13일(수) 오후 2:00 미술특강 '미술감상으로 감성열기' 빈센트 반 고흐 삶의 뜨거운 열정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고흐'와의 감성적 만남.
강사/이은미(뮤지엄에듀케이터)

존 아브람스 John Abrams

일 시 1월 24일(목)-2월 14일(목) 서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제 3, 4전시실
문의 서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북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존 아브람스 개인전.

존 아브람스는 그동안 근 현대의 영화, 미술, 소설 등으로부터 차용한 이미지들을 전략적으로 사용, 예술작품과 대중문화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징

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오면서 그의 회화를 시리즈별로 나열하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오롯이 감상하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영화의 서사를 보는 듯한 그의 회화 20여점과 작품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오전 10:30~오후 7:00(주말은 오전 11:00~오후 5:00, 매주 월요일, 설연휴 휴관)

22일(금) 오후 7:30 여행, 예술을 만나다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제14강 토스카(Tosca)와 함께하는 로마 여행 아트 커뮤니케이터 김성민이 들려주는 '행복한 여행 인문학 이야기' 14번째 강좌.

1900년 로마에서 초연된 오페라 '토스카'는 상당한 고증을 거쳐 탄생한 푸치니의 오페라로, 실제 오페라의 배경이 되었던 로마의 명소들과 오페라를 통해 바라본 100년 전 로마와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사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강사/김성민(아트커뮤니케이터)

제13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시와 음악의 만남-베토벤과 괴테, 슈만과 하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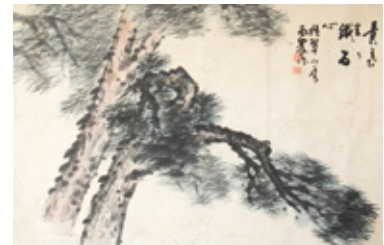
일 시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서면 신세계안과 5층 문화홀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 알바트로스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149

아키야마 준 Akiyama Jun

일 시 1월 24일(목)-2월 14일(목) 서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 제 1, 2전시실
문의 서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南道美術, 小痴一家와 그 흐름展

일 시 2월 1일(금)-2월 28일(목)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북칼럼니스트 박현주



심미안 수업-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윤광준 지음 / 지오인

288p / 1만5천8백원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는다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할까.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불행일지도 모른다. “이토록 삶이 거친 것은 뭐가 아름다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심미안 수업’이 필요한 이유다.” 김정운 문화심리학자가 한 말이다. ‘심미안’을 글자로 풀어보면 살림 심(審), 아름다움 미(美), 눈 안(眼)으로 쓴다. 아름다움을 살피는 안목을 의미한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눈, 심미안이 숨어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이 인류의 예술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예술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물건이어도 이왕이면 더 예쁜 것을 잡고, 일상에서도 미적 감각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여행, 쇼핑 등 일상생활을 넘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디자인숍을 찾다 다니며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술을 즐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술가의 이름을 모르거나, 그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예술에 대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북유럽 그림이 건네는 말

최혜진 지음 / 은행나무

272p / 1만5천8백원

빌헬름 하메르스희이, 크리스티안 크로그, 아나 안세르, 칼 라르손, 하리에트 바케르... 우리에게 조금 낯선 북유럽 화가들의 이름이다. 북유럽의 미술세계를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저자 최혜진 씨는 스물네 살에 빈센트 반 고흐의 무덤에 다녀온 뒤 작관이 시키는 대로 미술관 여행자가 되었다. <영화가 내게 묻다>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그림책에 마음을 묻다> 등의 책을 냈다. 이번엔 펴낸 책에는 코펜하겐, 오슬로, 베르겐, 스톡홀름, 모라, 헬싱키, 예테보리, 스킨, 라네르스, 오르후스 등 낯선 북유럽 도시의 미술관을 누벼온 지난 3년의 기록을 담았다. 북유럽의 그림들은 거대한 대의와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집, 밥, 일상을 몸으로 그려낸다. 구멍난 천을 기우고, 뜨개질을 하고, 야생화를 꺾어와 화병에 꽂고, 은은한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대화하고, 아이들과 식탁에 빙 둘러앉아 저마다 그림 연습을 하는 온기가 가득한 순간들이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 화가들은 아름다움이 거대한 십자가, 웅장한 성당 기둥, 근엄한 성자와 위인의 조각상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술한 걸레질로 반짝반짝 길들인 나무 수납장, 양파 껍을 아낙의 어깨에도 깃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근대영화사-1892년에서 1945년까지

이효인, 정종화, 한상인 지음 / 돌베개

368p / 3만2천원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에 서양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활동사진도 들어왔다. 활동사진은 조선 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신문물의 세계였다.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랐던 조선인들은 곧 영화를 보게 된다. 1892년 인천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인부좌(仁富座)가 설립된 것이다. 이 책은 1892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의 주요 장면과 사건, 인물, 영화운동, 영화이론, 작품, 관련 기록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영화가 유입되면서 극장이 설립되고, 영화 제작 산업과 흥행업이 발달했다. 영화라는 근대적 대중문화가 조선에 뿌리내리게 된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조선인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義理的仇討)’가 상영됐다. 1963년 한국영화인협회에서는 이를 한국영화의 기점으로 삼아 이날을 ‘영화의 날’로 지정했다. 이 책은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기념하며 우리 영화의 역사를 살펴본다. 서구 근대와 일본 근대 사이, 서구영화와 일본영화 사이에서 만들어진 ‘조선영화’가 오늘날 한국영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 유럽의 예술, 역사 속으로 떠나는 문화예술아카데미 특강

유럽의 미술관 2월 1일(금)-22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유럽 여행 인문학 3월 8일(금)-29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오는 2월부터 두달간 유럽의 예술,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강좌를 마련한다.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예술융합 강사로 활동중인 김성민이 진행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강사의 풍부한 경험과 해설로 우리가 흔히 아는 ‘뽀하고 진부한 유럽’이

아닌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미술관’에서는 세계예술사조의 집대성이

자 매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유럽의 미술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바티칸 박물관’과 ‘프라도 미술관’을 소개한다. 수백 년간 중세유럽을 지배한 교황의 보물창고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작품을 만나며, 스페인의 자랑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스페인 왕실의 거대한 컬렉션과 더불어 기라성 같은 거장들의 작품 중에서도 스페인 회화사의 정점을 이룬 벨라스케스와 낭만주의 회화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고야의 삶과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3월 8일 시작되는 ‘유럽 여행 인문학’에서는 유럽의 도시가 지닌 인문학적 매력들을 살펴본다. 유럽문화의 뿌리이자 고대 로마와 기독교의 발상지인 유럽의 수도 ‘로마’에 이어 새로운 유럽 여행지로 각광받는 독일, 그 중에서도 대문호 괴테가 사랑한 도시 ‘프랑크푸르트’의 매력을 알아본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는 지난 2017년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실기강좌에서부터 인문학, 교양강좌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수준높은 강좌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전시교육팀 607-6061~4, www.bscc.or.kr

2019년 부산시민회관 백스테이지투어 안내

우리가 관람하는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부산시민회관 극장무대체험 ‘백스테이지투어’를 신청하세요.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chan@bscc.or.kr)
- 운영일정 || 2월 19일(화) & 24일(일), 4월 23일(화), 5월 21일(화)
오전 10:00~오후 12:00
※단, 공연일정에 따라 백스테이지 투어 일정은 조정 될 수 있음
- 투어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및 소극장
- 참가비용 || 무료
- 참가인원 || 선착순 30명
(초등학생 체험시 반드시 성인 1인 동반 신청)
※ 투어 프로그램 특성 상 안전을 위해 인원 제한
※ 정원미달시(최소 10인) 일정조정 또는 취소
※ 학교 등 단체참여 희망 시 별도 문의 요망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무대운영팀
630-5240, 5243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
부산시립예술단 관객맞춤 공연

‘2019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희망 기관 모집



예술로 꿈꾸는 즐거운 일탈을 위해 2019년
부산시립예술단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부산,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특별한 순간,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시민들에게 공연으로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2019년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부산시립예술단 맞춤공연

운영 개요

- 공연기간 : 2019. 3.1~2019.12.31.
- 접수기간 : 2019.1.25.~2.9
- 공연단체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공연규모 : 10명 내외로 공연 성격에 맞게 구성
- 소요시간 : 40분내
- 신청가능행사 : 부산지역 복지관 행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기관 행사
서/동부산권 근로자를 위한 공연 등
- 접수방법 : 전자우편 bko2934@bscc.or.kr
※ 접수마감 후 선정 회의를 거쳐 공연 단체,
공연 일정, 프로그램 선정
- 참가비 : 무료
(조명, 음향 등 공연진행에 필요한 시설,
경비는 기관 부담)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부산시민회관 2019 시즌프로그램

공연



2019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

1.23(수) | 대극장
전석 1,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천원의 행복으로 누리는 부산시민회관 새해음악회는 최수열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시작한다. 1시간 가장 진행되는 클래식 입문 기획공연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과 음악인의 꿈으로 일구어 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부산시민회관 뮤지컬 갈라 콘서트

2.9(토) | 대극장
VIP석 9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최고의 가수와 아티스트의 공성함이 가득한 화려한 무대, 2019년의 찬송이 될 최고의 콘서트



박지하: Communion 커뮤니티

2.22(금) | 소극장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2016년 정규 1집 음반 <Communion 커뮤니티> 발매 이후 국내외 공연을 함께 해왔던 크리스바가(비브라폰), 김오키(색소폰, 베이스클라리넷), 전재근(베이스) 등 세 명의 연주자와의 마지막 협연이 될 이번 공연에서는 박지하의 정규 1집 음반 수록곡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 발표한 2집 음반 <Philos 필로스>의 수록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 부산 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3.2(토) | 대극장
전석 10,000원
전 연령 관람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서트로 뮤지컬은 물론 팝에서 재즈까지 전 장르를 모두 소화하는 세계적인 보컬리스트들로 구성된 남녀혼성중성단 케이를 상어스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진다. 뮤지컬 넘버들이 지니고 있는 감성과 캐릭터를 완벽 재현한 공연!



벚꽃스캔들

3.16(토) | 대극장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봄 하면 떠오르는 따뜻한 음색과 감성
#2019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
#연인들의 데이트에 가장 어울리는 선곡

2019년 3월 부산시민회관의 풀엔드라이브 라인업을 기대해주세요



아트서커스 BACKBONE | 호수

5.1(수)-5.2(목) | 대극장
VIP석 80,000원 /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A석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BACKBONE공연은 현대 서커스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워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 라이브 음악과 화려한 볼거리와 스트레스를 확 날려줄 짜릿한 묘기로, 가족끼리 보기 제격인 공연이다.



부산월드뮤직페스타

5.16(목)-17(금) | 소극장, 야외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가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

7.24(수)-8.1(목) | 소극장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공연별 상이(12개월 이상부터)

끝없는 상상의 시작,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어린이들은 공연을 관람하며 가보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무대 위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이후 이어질 상황을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진다. 여름방학 동안 일상을 벗어나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떠나고 싶다면 '제2회 해외아동청소년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부산시민회관으로 가보자.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얼씨구

9.6(금) | 소극장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NPR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민요 복병드 '핑핑'의 리더보컬,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이희문컴퍼니가 음악동인고울의 라이브 음악연주로 함께하는 '거침없이 얼씨구'는 소리꾼 이희문과 농뿔, 숙씨스터즈가 함께 신나는 퍼포먼스로 관객과 즐기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제6회 부산직장인밴드 경연대회

11.16(토) | 소극장
무료
전 연령 관람가

부산일보사와 (재)부산문화회관이 공동주최하는 제6회 부산직장인밴드경연대회 본선이 11월 16일(토) 오후 3시 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2016년에는 '팬텀싱어2'의 우승팀 멤버였던 강형호, 2017년에는 레이디스갯튼, 2018년에는 경키스트 등 숨은 실력자를 배출하는 동용문으로 우승자에게는 음원제작지원과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시



노만파킨슨 '스타일은 영원하다'

2.15(금)-4.30(화) | 1, 2층 전시실
성인 8,000원 / 초중고, 경로 3,000원
패션전공 대학생 4,000원 / 미취학 무료
전 연령 관람가

노만 파킨슨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야외 촬영 방식을 만들어 낸, 1940년대 영국 패션 사진계의 혁명가이다. 부산시민회관은 KT&G 상상마당과의 협업을 통해 유행을 넘어 현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생동감과 순발력, 유아가 담긴 150여 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금년새와 함께하는 노만 파킨슨의 '스타일은 영원하다'

4.5(금) | 대극장
성인 20,000원 / 초중고 10,000원
전 연령 관람가



반려동물展

6.14(금)-7.31(수) | 1층 전시실
무료
전 연령 관람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따뜻한 전시이다. 유기견 보호를 위하여 기획된 부산시민회관 특별기획전시로, 동물과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클래식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갤러리창

1.1(화)-12.31(화) 상시전시 | 갤러리창
무료
전 연령 관람가

'갤러리 창'은 부산청년작가 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된 2평 정도의 공간으로 원도우 큐브형태의 색다른 공간이다. 소극장과 바깥 광장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즐겨 찾는 공간인 만큼, 어린이들에게 상상과 판타지를 제공하는 기획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부대행사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 소극장
무료
전 연령 관람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뜨락축제

4.19(금)-5.24(금), 9.20(금)-10.25(금)
시민회관 야외광장 | 무료
전 연령 관람가

시민회관 주변의 직장인, 주민,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소통의 무대가 되고 있는 '시민뜨락축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부산시민회관의 기획공연으로,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무용,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부산시민들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프리마켓도 야외광장에 펼쳐져 부산 시민회관의 '유쾌한 문화놀이터'로 기획된 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이다.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예술에의 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 구분 | 후원 금액 | 법인/개인 |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 | 아카데미 | 컨퍼런스 홀 | 좌석 네이밍 (대극장) |
|-------|--------|-------|---|---------------------|-----------|------------|--------------|
| | | | 기획공연(연간) | 전시 | | | |
| 이사 회원 | 500 이상 | 법인/개인 |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 본인·배우자 무료 | 본인·배우자 무료 | 1회 무료 (연간) | 2개 좌석 |
| | 300 | |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 본인 50% 할인 | 50% 할인 | |
| 일반 회원 | 100 | 개인 |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 본인 10% 할인 | 20% 할인 | 1개 좌석 |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운영기(010-7361-7273)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원 명단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회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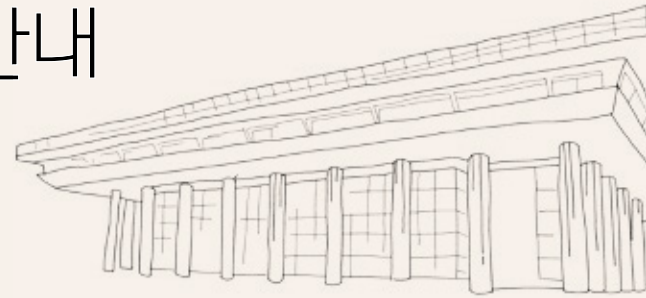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총장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중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신상현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숙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2019년 1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호 게재)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74~6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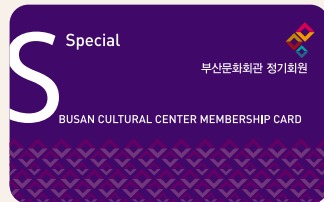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2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 부산시립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매월 1회 초청, 여행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등



- 연 회 비** : 10만원
-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 회 비** : 5만원
-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 회 비** : 3만원
-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가입단체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사전 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초대 기회제공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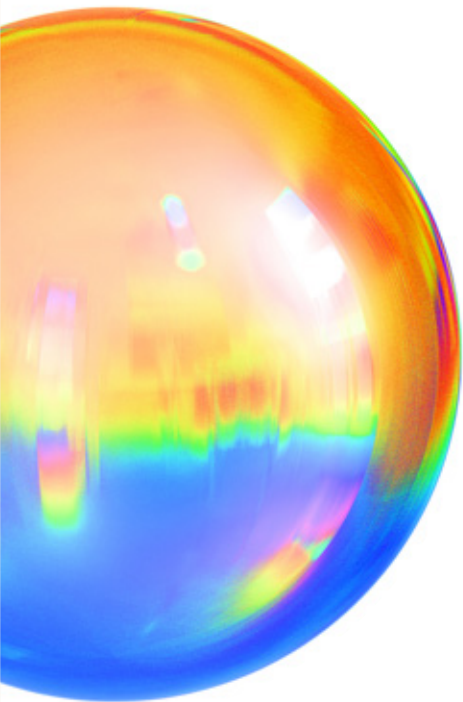
MEMBER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19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드 코랄 나잇 **예약중**

2월 2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100매)

국내에서 잘 접할 수 없는 불가리아와 인도네시아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 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과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가 출연, 각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KNN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3월 14일(목), 12월 12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50매)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교향악단인 KNN방송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2019 노자와 베토벤 '고진감래(苦進感來)'

3월 30일(토), 6월 2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100매)

철학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자와 베토벤' 2019년 무대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수), 5월 22일(수), 6월 26일(수)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100매)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 '조윤범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019년 무대.

세계적인 아트서커스 BACKBONE

5월 1일(수) 오후 2:00, 2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50매)

경이로운 곡예와 따뜻한 위트, 환상적인 무대예술의 완벽한 조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있는 세계적인 아트서커스단 BACKBONE의 무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홍보마케팅팀(607-6074~6)

VIP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19


우리 춤

Korean Traditional Dance

산책

2019. 3. 7(목) ~ 8(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균일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21~2(무용단)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40%, | 정기회원, 예술인 패스 20%

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 &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
Bulgarian Voices Berlin & Indonesia Youth Choir

월드코랄나잇

World Choral Night

2019. 2. 22.(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보르야나 벨리코바
Boryana Velichkova

토미얀토 칸디사푸트라
Tommyanto Kandisaputra



불가리아 보이스 베를린



인도네시아 유스 콰이어

아동학대 예방 콘서트

내 작은 이야기

2019. 3. 2(토)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EVENT

아이들을 위한
음료 및 초콜릿을
무료로 드립니다!

입장권 전석 1만원 특별할인 아이동반·임산부·다자녀가족 1천원 (모든 연령 입장 가능)

출연 소프라노 이연정, 강부영, 이경희 테너 이동명, 서승환 바리톤 김민형, 박세훈 피아노 윤혜련

할인 정보 90% 아이동반·임산부·다자녀가족할인 아이동반·임산부·다자녀가족 관람객 영유아단체할인 영유아 관람객 50% 복지할인 장애인 1급~3급·동반 1인, 장애인 4급~6급·본인만, 국가/독립유공자·본인만, 의사상자 본인 및 유족 30% 정기회원할인 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 (회원등급별 매수제한 있음) *중빙카드 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패밀리뮤지컬

핑크포랜드

황금별을 찾아라



2019. 3.16(토) -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일시 토 11시, 14시, 16시30분 | 일 11시, 14시, 16시30분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문의 1644-5564

주최 부산문화회관 | 주관 HJR (주)화랑엔터테인먼트 | 제작 유진엔플러스

부산에 오면

꼬등어 초콜릿

GGO DEUNG O CHOCOLATE



★ BUSAN ★
GGO CHOCOLATE

부산 꼬등어 초콜릿 16개입 · BUSAN Mackerel Chocolate GGO 16pcs



부산꼬등어초콜릿 144g(810kcal) 코코아분말 14.5%, 고평꾸이[연육(국내산/꼬등어93.7%)]1.34% 함유

대형선망수협

맛있는 초콜릿에 꼬등어가 풍당~!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아름다운 황후



Elisabeth
DAS MUSICAL

엘리자베트

A Musical by Michael Kunze and Sylvester Levay
Directed by Robert Johanson

2019.3.22~3.24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클럽서비스, 부산문화회관, 인터파크 | 문의 1544-1555 | 주최 부산문화회관 | 주관 ㈜공연마루 | 제작 ㈜EMK뮤지컬컴퍼니

ORIGINAL PRODUCTION BY VBW  VEREINIGTE BÜHNEN WIEN
a company of  wienho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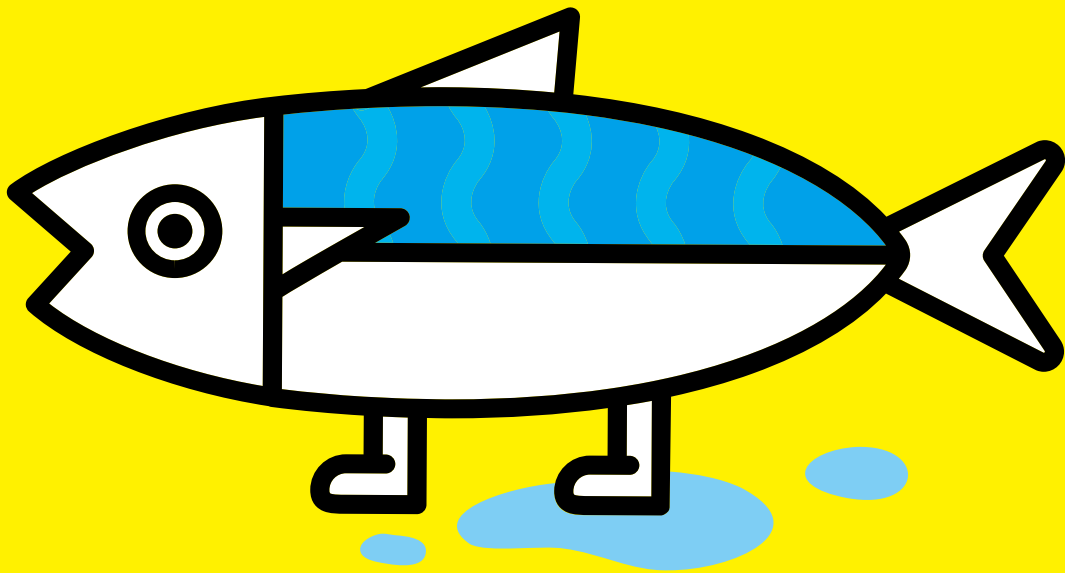
EMK

발 달 리

꼬드어

GGO
DEUNG O

호기심으로 뚝뚝 뭉친 두다리로
여행을 즐기는 부산 대표 캐릭터



www.designivy.com www.designbusan.kr

꼬드어는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市魚), 고등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FACEBOOK



INSTAGRAM

(주) 디자인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5번길 90 평광우리가 1층 TEL. 051. 636. 1216



KNN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가족음악회



지휘 금난새

연주 KNN방송교향악단



소프라노 윤정빈



바리톤 성승욱



바이올린 위재원

2019. 3. 14.(목)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